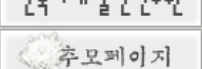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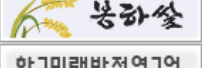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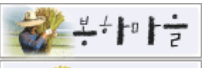


ID저장  
**로그인**  
 회원가입 | ID/PW 찾기

**노무현이야기**

- ▶ 걸어온 길
- ▶ 말과 글
- ▶ 함께 생각해봅시다
- ▶ 추모게시판
- ▶ 좋은글과 영상



**말과 글**

정치하지 마라.

조회수 : 109607  
 등록일 : 2009.03.04 22:20

‘정치, 하지 마라.’ 이 말은 제가 요즘 사람들을 만나면 자주 하는 말입니다. 농담이 아니라 진담으로 하는 말입니다. 얻을 수 있는 것에 비하여 잃어야 하는 것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정치를 하는 목적이 권세나 명성을 좇아서 하는 것이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공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성공을 위하여 쫓아야 하는 노력과 감수해야 하는 부담을 생각하면 권세와 명성은 실속이 없고 그나마 너무 짧습니다.

이웃과 공동체, 그리고 역사를 위하여, 가치 있는 뭔가를 이루고자 정치에 뛰어든 사람이라면, 한참을 지나고 나서 그가 이룬 결과가 생각보다 보잘 것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열심히 싸우고, 허물고, 쌓아 올리면서 긴 세월을 달려왔지만, 그 흔적은 희미하고, 또렷하게 남아 있는 것은 실패의 기록 뿐, 우리가 추구하던 목표는 그냥 저 멀리 있을 뿐입니다. -저는 언제 이 실패의 이야기를 글로 정리해 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정치를 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정치에 바쳐야 합니다. 정치를 위하여 무엇을 바쳐야 하는지를 헤아리는 것보다, 그가 가진 것 중에서 정치에 바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를 헤아려 보면, 아닌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생활, 특히 가족들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없는 것은 참으로 치명적인 고통입니다. 그러나 이 정도까지는 스스로의 선택이니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정치인이 가는 길에는, 미처 생각하지 않았던, 그리고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난관과 부담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거짓말의 수렁, 정치자금의 수렁, 사생활 검증의 수렁, 이진투구의 수렁, 이런 수렁들을 지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좋은 조건을 가진 정치인이 아니고는 이 길을 회피하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수렁에 빠져서 정치 생명을 마감합니다. 살아남은 사람도 깊은 상처를 입은 사람이 많습니다. 무사히 걸어 나온 사람도 사람들의 비난, 법적인 위협, 양심의 부담, 이런 위험 부담을 안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말년이 가난하고 외롭습니다.

거짓말의 수렁 -거짓말을 좋아하는 정치인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유권자나 참모들과 싸우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한 편으로는 상대방의 거짓말, 근거 없는 보도, 풍문에 상처를 입고 진실을 밝혀 보겠다고 발버둥치기도 하지만, 곧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감각이 무디어집니다. 고의로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나중에 보면 거짓말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점차 거짓말을 하지 않고는 정치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마침내 거짓말에 익숙해집니다. 사람들은 정치인들을 소재로 우스개거리를 만들어 웃고 즐기고 돈벌이까지 합니다. 단지 그 정도라면 있을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거저 농담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믿고 분노하고 경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인의 양심도 인격도 땅바닥에 떨어져 뒹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돈의 수렁 -돈정치는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정치에 돈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돈을 조달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전에 비하면 후원회 제도가 많이 정비되기는 했지만, 지역을 관리하거나 열심히 일하는 의원에게는 한참 부족합니다. 원외 정치인의 사정은 참담하다 표현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가끔 뭘 먹고 사느냐? 세금은 얼마나 냈느냐? 이런 질문이라도 받는 날이면 참으로 난감한 처지가 됩니다. 원외 정치인은 둘러댈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돈벌이를 할 방법도 없습니다. 국회의원에게는 연금제도도 없습니다. 결국 노후는 대책이 없습니다. 원외 정치인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물론 스스로 돈이 많은 부자이거나 셈이 깊은 후원자라도 있는 복이 많은 정치인에게는 이런 이야기는 해당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어디 많겠습니까? 또 그런 사람만 정치를 하는 나라 정치

- 빠른 메뉴**
- 글로벌네트워크
  - 부산지역위
  - 광주지역위
  - 제주지역위
  - 전북지역위
  - 대구·경북지역위
  - 전남지역위
  - 대전·충남지역위
  - 동호회
  - 봉하 오는 방법
  - 모역 안내

9일간의 비탄하면  
 오늘 하루 열지않음

가 과연 잘될 것인지도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언젠가 정치와 돈에 관한 이야기도 글로 써볼 작정입니다.-

사생활의 노출 -정치인은 사생활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밀인 일도 정치인에게는 비밀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 가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동의 자유도 없습니다. 연극을 보러 가는 일도, 골프를 치는 일도 세상 분위기와 언론의 눈치를 살펴야 합니다. 밥 먹는 자리에서 농담도 함부로 하면 사고가 납니다. 실수가 아니라도 실수가 됩니다. 저격수는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공인으로서 검증을 받는 것이야 당연하다 하겠지만, 당사자로서는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에서는 공공의 이익과 사생활보호의 한계가 너무 모호하여 더욱 고통스럽습니다.

이전투구의 저주 -정치인들은 왜 그렇게 싸우는가?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민주주의 정치 구조가 본시 싸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당을 서로 나누어 싸우지 않는다면 민주주의 정치는 무너집니다. 정도의 문제일 뿐입니다. 독재 시절에는 여야의 싸움이 전쟁이었습니다. 감시하고 조사하고 죄를 씌워 감옥에 보내고 아이들 직장생활도 못하게 했습니다. 야당은 정치는 고사하고 먹고사는 것도 힘들게 했습니다. 패자는 살아남을 수가 없었으니 전쟁인 것이지요. 그러나 민주주의에서는 싸움이 전쟁에서 게임으로 바뀌었습니다. 패자라도 정계에서 밀려나지 않고 다시 도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싸움은 싸움입니다. 민주주의라고 싸움이 항상 규칙대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정쟁을 전쟁으로 하던 적대적 정치문화의 전통이 남아 있고, 사회적 대립과 갈등이 큰 나라에서는 자연 싸움이 거칠어지고 패자에 대한 공격도 가혹해 지기 마련입니다. 욕설, 몸싸움, 거짓말, 중상모략, 뒷조사 이런 악습이 남아 있는 이유입니다. 결국 이런 싸움판에서 싸우는 정치인들은 스스로 각박해 지고 국민들로 부터는 항상 욕을 먹는 불행한 처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독과 가난 -좀 막연한 짐작입니다. 이미 그런 처지에 빠진 정치인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옛날에는 돈을 좀 모은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보통의 정치인에게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자녀들의 형편이나 관계도 과거와는 아주 다를 것입니다. 제 경험으로는 정치를 하는 동안 옛날 친구들과는 점점 멀어졌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기도 하고, 생각과 정서도 달라지기도 하고, 손을 자주 벌려서 귀찮은 사람이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다른 정치인들은 저와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결국 돈도 친구도 없는 노후를 보낼 가능성이 어느 직업보다 높을 것입니다.

이 글을 쓰면서 정말 저의 말대로 정치할 사람이 없어지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생기지 않겠지요? 정치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일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제가 걱정하는 것은 정치의 신뢰가 이런 속도로 계속 떨어지면, 정치가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을 점차 상실하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90년 3당 합당 이후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치를 하자고 권유를 하고 다녔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정치인을 위한 변명’을 글로 써보고 싶었습니다. 나는 지옥 같은 터널을 겨우 빠져 나왔지만, 남은 사람들의 처지를 안타깝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독일의 어떤 정치인이 쓴 ‘정치인을 위한 변명’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변명으로서 별 효과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글도 정치인을 위한 변명으로 별 효과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정치인을 위한 변명으로 이 글을 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정치인을 위하여 이 글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정치가 좀 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정치가 달라지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이 먼저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정치인의 처지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이 알아주지 않는 머슴들은 결코 훌륭한 일꾼이 될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이 자존심 상한다 할까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무릅쓰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해답이 아니라 문제제기입니다. 함께 생각해 보자는 제안입니다.

저의 이 이야기는 모든 정치인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좋은 조건에 있지 않은 보통의 정치인들은 거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해당 없는 분들께는 양해를 구합니다.

총평 275개

얼음공주 2009.03.04 22:26

놀랐습니다. ^^;  
정치하시면서 많이 외로우셨을것 같아서..마음이 살짝 아파옵니다.  
무쪼록 건강하셔야 합니다. ^^  
오늘같은밤 노무현대통령님의 글을 만나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선물받은것 같습니다.  
노공이산님의 마음속에도 화창한 봄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기도합니다.  
편안한밤 되세요~~~

현진 2009.03.04 22:26

^^..  
아이고..  
  
또..뵙네요..  
건강하시지요...^^  
글 잘읽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어쩐지 게시판에 오래 머물고 싶더만..  
이렇게 행복한일이..  
좋은글 감사합니다..  
꾸벅..

개울가 2009.03.04 22:27

와우^^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싶습니다.  
건강하십시오.강건하십시오.너무 마음아파 하지마십시오.

빨간사과꼬마 2009.03.04 22:27

많이 힘드셨을 노공님 ...

대실골 2009.03.04 22:30

이런 로또당첨이 이런 느낌일까요?  
뜻밖에 행운을 낚았습니다,

붕어마니 2009.03.04 22:32

결국..  
우리 대통령님도 보통사람 이셨군요~^^  
정치인을 이해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아직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나 장관을 하면 엄청난 노후 연금이 보장되는줄 아는게 현실입니다~  
이렇게 잘 못하고 있는 국민들을 깨우쳐 주는것도 결국엔 정치인의 몫으로 보여집니다~ 신뢰가 회복된다면..

내마음 2009.03.04 22:33

허걱 ...깜짝 놀랐습니다...몸은 건강하신지요...허리가 좀 안좋으시다더니....건강하십시오..  
우린 남이 건강한 모습으로 있어야 희망이 있습니다.  
좋은 날 다시 돌아 올겁니다....ㅎㅎㅎ님께서 대통령으로 계실때 선거풍토가 많이 깨끗해졌죠..  
저역시 대통령과 동갑이라서 술한잔거를 치렀지만 누가 뭐래도 남이 하실때 하나 하나 깨끗해졌습니다

도원경 2009.03.04 22:34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방긋 2009.03.04 22:35

글을 보면서 저희 집에 몇년 전을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지금은 가족을 위해 남편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을 포기했지만  
간혹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자신이 끝까지 감내를 했어야  
했나 하는 후회 아닌 후회도 살짝 해본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 버린답니다...

노짱님~  
전 여사님이 존경스럽습니다..(^.^)

만허공 2009.03.04 22:35

열심히 싸우고, 허물고, 쌓아 올리면서 긴 세월을 달려왔지만, 그 흔적은 희미하고, 또렷하게 남아 있는 것은 실패의 기록 뿐, 우리  
가 추구하던 목표는 그냥 저 멀리 있을 뿐입니다.(2).....

날마다 날마다 온 하룻밤  
쌓았다 헐었다 긴 만리성  
김소월의 짧은 시가 생각됩니다.노짱님의 끊임없는 번민이 와 닿아 가슴이 찡하는군요.  
전임 대통령을 적 다루듯 하는 현실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럴수록 더 노짱님과 함께 힘을 믿으시고 봄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

digna 2009.03.04 22:36

노짱님  
존함 석자를 뵈면서 깜짝 놀라  
땀글 부터 올립니다.  
건강 하신지요?  
노짱님께 쪽지가 많이 있을 텐데 읽어 봐 주십시오.  
땀글들을 읽다 보니 많은 회원님들이 쪽지 보내신 것 같습니다.

개울가 2009.03.04 22:42

예전에 제가 아는 후배녀석 국회의원 입후보한다고해서 몇개월같이 보냈는데, 끝내 휴~~  
이혼하고 마는 광경 옆에서 지켜보고야 말았습니다.

부족한 사람 2009.03.04 22:46

건강은 어떠신지요..  
노짱님!! 보고 싶습니다..그립니다..

독신일중 2009.03.04 22:49

안녕 하세요, 저는 詩人 으로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일을 안한건 아니나. 남들이 말하는 죽을 죄를 지은것 같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언젠가 될진 모르나 정치에 대해 관심이 있으며 정치를 하고자 하는 마음은 늘 마음 구석에 와돌 생각이니까요. 그렇다고 나와 다른 이들을 공격 하는 말도 안할수 없을 것이고. 그렇다고 내가 쓰느느 詩와 같은 세상 한번에 만들기 힘들겁니다. 한국은 아직 "싸움" 이 존재 하고 심판을 보는 언론이 솔직히 편들지 않으면 존재 가치에 의문부호를 다는 문화적 정치적 색깔 대비가 심한 나라니까요. 제가 끝에 막노동 하면서 정치인을 해보고 싶어 하는 것은, 나의 고생 때문이 라기 보다. 내가 詩를 쓰면서 느낀 좀 더 나은 것에 대한 도전 때문입니다. 그것이 나의 어떤 희생을 요구 하거나 상처를 받을 것을 전제 하고 가는 거지요. 상처 받지 않는 사람의 생각이 앞으로 발전이나 용서가 있을까요? 상처 받지 않는 사람이란, 이기적인 욕심으로 혹은 그것이어야 한다는 전제로 완벽해야 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으니까요. 사실 그 완벽이라는 정치를 하려는 사람들이 또 정치인이기도 하지만.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인간적인 감성의 코드가 국민들에게 전해 진다면 서로 소통 하는 "자" 의 정치를 할수 있을것도 같아 보입니다.

문제는 그 사람은 결국 노공이산님의 말씀 처럼 그런 과정을 필수로 격어야 하는 한국의 정치생태에서 얼마나 견뎌 내느냐 이겠지만.

그래서, 저 같은 막노동을 하는 詩人 도 정치 할수 있는 그런 세상이라면, 좀 다른 모습의 미래를 그릴수 있지 않나 욕심 내 봅니다.

이창섭 드림.

선장 2009.03.04 22:50

허리에는 운동이 좋습니다^^\*

엘몬테 2009.03.04 22:51

건강 하십시오.

청갈매기 2009.03.04 22:52

정치인들을 혐오하고 미워했지만 대통령님의 모습에서 많이 위안을 가지곤 했었지요,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마당 2009.03.04 22:53

좋은 주제를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노공님이 아니시면 어느 누가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좀 마음 편히 쉬셔야 하는데... 또 그렇지를 못하실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신의소리 2009.03.04 22:53

정치...란게 사람들이 갖을수 있는 온갖 술수를 모두 동원하는 그런 직업이 아닐까요? 아니, 그런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많은 정치인들이 생명을 유지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 까지 그렇게 보이거나, 그렇게 되거나, 휩쓸려야 되는 겁니다.

거짓말하는것은 정말 나쁩니다. 제일 해를 입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죠!

자신을 속일수는 없기 때문 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통령이신 노무현 대통령님은 정말 요,순 시절에서나 볼수 있는 참 정치를 하셨습니다.

국민이 마음을 열고 마음의 대화를 할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만보면, 남의 목소리만 들어도, 남의 이야기만 해도 눈물이 나오지요.

이건 어쩔수 없는 일입니다.

존경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사랑 고백을 하수 있을까요?

자식에게도 "사랑한다"라는 말을 하기엔 쑥스럽 더군요.

그러나, 당신께는 이렇게 쉽게, 자신있게 할수 있습니다.

내내 건강 하세요!

아타락시아 2009.03.04 22:53

항상 새로운 시각으로 이 시국을 바라보시는 님이시여...

님의 확고한 뜻이 우리 사사세 회원들에게 강하고 굳은 사고로 정치인들을 바라볼수 있게해주시는군요...

어떤 위기에 봉착해도 우리들은 님의 생각과 사상을 온 몸에 일치시켜

각자의 위치에서 마음 먹었던 일들을 성취할수 있는 힘을 주시는군요.... 새로운 열쇠를 우리 모두 쥐고 있습니다...

무현동상 2009.03.04 23:01

이웃과 공동체, 그리고 역사를 위하여, 가치 있는 뭔가를 이루고자 정치에 뛰어든 사람이라면, 한참을 지나고 나서 그가 이룬 결과가 생각보다 보잘 것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열심히 싸우고, 허물고, 쌓아 올리면서 긴 세월을 달려왔지만, 그 흔적은 희미하고, 또렷하게 남아 있는 것은 실패의 기록 뿐, 우리가 추구하던 목표는 그냥 저 멀리 있을 뿐입니다. -저는 언제 이 실패의 이야기를 글로 정리해 볼 생각입니다

노짱님 도저히 이글에는 추천을 올리지 못하겠습니다.

너무 과한 자기부정이시라 생각합니다.

노짱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이 나라 이 민족의 민주와 자존을 위해 싸워 오셨습니다. 또한 많은 불합리를 허물었고 새로운 가치를 쌓아 올리셨습니다.

다만, 그것이 지금 다른이들에 의해 부정될 뿐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짱님과 울 모두가 간직하고 믿고 있듯이 역사는 바름을 위한 내달림질을 절대 쉬지 않을 것이라는것과, 그것이 역사에 빼

꼭히 기록될 것이란 것입니다.

절대 노짱님은 실패한 정치인 일수 없습니다.

지금은 비록 많은 이들이 이를 몰라주어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것이 너무도 잠깐임을 전 믿습니다. 노짱님의 세상을 향한 포효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digna 2009.03.04 23:02

많은 것을 잃게 되었지만, 그 반면  
더욱 더 많은 것을 얻게 되신 건 아닐까 위로의 말씀도 올려 봅니다.  
가족, 친구들, 돈, 명예, 남자로서의 사명감, 정의, 민주주의,  
수 많은 지지자들.....  
열정에 가득차 있던  
젊은 시절 로 다시 돌아 간다면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릴 선택을 하실까요?  
노짱님을 알게 된 후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 제게는 또 한 분의 스승을 얻게 되었습니다.

비단장시 2009.03.04 23:08

"나는 지옥 같은 터널을 겨우 빠져 나왔지만, 남은 사람들의 처지를 안타깝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정치하시는분들을 보면 어느당을 막론하고 갑자기 콧~ 늙어보이기 시작합니다.. 보면서 속으로 힘드시구나 하고 느낍니다.

그분들의 고쳐를 힘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또한 정치란 연예인처럼 마약같아서 떼놓수 없어서 끝없이 주변을 맴돌며 추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지금도 마음이 편하지 않을것같아서 마음이 짜안해집니다.  
힘내세요..

북두 2009.03.04 23:09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신뢰와 함께 정부에 대한 신뢰도 많이 허물어 지는것이 현실이고 안타깝습니다.

이 사회의 대립과 갈등은 이제 누가, 어느 조직및 단체가 해소할 수가 있을까요?

정치도 아니고 정부도 아니고 종교쪽도 아닌거 같고...

그저 슬취함만을 강요하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먼저 가신 분들께 그저 머리만 조아릴 뿐입니다.

봉하가는길1 2009.03.04 23:11

대통령님 ! 건강하십시오~

존경 합니다~(꾸벅)

가람^^\* 2009.03.04 23:14

감사합니다.  
좀 피갈까요. ^^\*

무쏘궁댕이 2009.03.04 23:18

만허공님께서 4등 하실려고 점을 먼저 찍으셨네요.. ㅎㅎㅎ  
/노공이산님..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빌어드립니다...^^

윈더우먼 2009.03.04 23:21

대통령님과 가까운 분들이 한분 한분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기가 많이 힘들길로 압니다... 저희가 어떻게 해드릴 수 없다는 것이 맘을 아프게 합니다.. 대통령님... 누가 뭐래도... 최선을 다하셨고, 최선을 아니면 차선을 선택했고,, 그 순간순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연구하셨고,,, 또 그렇게 결정하셨잖습니까... 더 이상 뭘 어떻게 할 수 있던 말입니까... 그 누가 더 이상을 할 수 있었던 말입니까... 자책하지 마시고,,, 건강하시고,,, 이렇게 노공이산님을 바라보고 있는 저희들을 생각하셔서,,, 부디 건강, 또 건강하시기를 진정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울 대통령님...

내사랑 2009.03.04 23:23

노무현 대통령님. 님을 항상 사랑합니다.  
대통령님의 마음이 모든정치인에게 나누어졌으면 합니다.

차칸늑대 2009.03.04 23:30

외람되오나,한말씀 드리고자합니다.

"정치하지 마라."

궁극적으로 이 말씀에 동의합니다.그러나...  
대통령님께서서는 이 말씀에 주연이되지마시라고 부탁말씀드립니다.

이유 1 : 작금의 정치구도나, 일부 울치못한정치인들에게  
진짜 정치를 가르쳐주실분이 현재로선 노공님밖엔 안계시니까요.

이유 2 : 따라서 썩어가는...아니 썩어있는 정치인들을 정화시켜야하는,  
정화시킬수있는 그런 정치인재양성을  
진짜 대통령이신 노공님께서 하셔야합니다.

이유 3 : 위의 2가지로열거한 저의이유는 노공님께서 꼭 해주셔야만하는  
외면하셔서는안되는 책무라고여겨주십시오.  
그러서야 국민이살고,나라가살고, 정치살지않겠습니까!!!

그간 국사돌보시느라 많이도 늙어지신모습에 가슴속이 아려웁니다.  
배움도...아망도 없는 무지랭이민초가,외람된글을림을 용서해주십시오.

공주님처럼 2009.03.04 23:34

각하라는존칭은 이분에게만 쓰는겁니다.

저는 정치하지말라는뜻을 실력없는사람들 도둑님심보갖은자들  
정치하러하지말라는뜻으로  
해석했습니다  
노무현대통령..당신같은신분이 다시 집권해야합니다.  
정치 하십시오.  
가능하다면 다시 재출마하십시오.  
노.무.현.이름석자만으로도 이렇게 흥분되고 신이나는데..  
당신처럼하는정치 그런정치인을 그리워하고있습니다.

笑而不答 2009.03.04 23:35

철푸덕

칼의 노래 2009.03.04 23:35

오늘 고백합니다.  
저는 아직까지 '노짱'이란 표현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알아보진 않았지만...'짱'이란 말이 일본에서 유래한 말이 아닌가 해석니다.  
그러나 오늘 이유없이 말씀드립니다.  
"노짱님, 짱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제가 노짱님을 찾는 것은 바로 '사람'임을 자처하시는 그 향기에 끌려서 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처음으로 표현합니다. "노짱님, 사랑합니다!"

술말2 2009.03.04 23:39

넷 공간에서 이렇게 어우러질 수 있는 정치인이 앞으로도 있을까요... 이런 분이 많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터진후라이 2009.03.04 23:48

여러분..너무 놀라지 마세요^^;  
박물관에 박제 되어진채로..정형화 되어서 유리관속에 공공  
잠겨져 있는 유물..그래서..만져서도 안되고..가까이 갈수도 없는  
그런 서먹하고 특별한 먼..형상이 아니고..  
우리과 같은..불완전한 면모도 지니고 있는 친밀함..  
온라인이든..오프든..어떤 방법으로든  
이리 가까이 게서 주는 모습이라서..  
노공이산님 좋아라 하는거 아임니까 모두들.  
그냥..그렇게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 들여 집니다^^

[열심히 싸우고, 허물고, 쌓아 올리면서 긴 세월을 달려왔지만,  
그 흔적은 희미하고, 또렷하게 남아 있는 것은 실패의 기록 뿐,  
우리가 추구하던 목표는 그냥 저 멀리 있을 뿐입니다]

\*

\*

이런저런 마음적 고뇌들을 많이 앓으시는구나..마음 아픕니다.  
그리..스스로에게 과소평가 하지 마세요.  
계게 시선이 쏠린..첨단제품이거나..영화이거나..배우이거나..  
중중..대박보증수표가 되곤 하는 귀기..일종의 예민한 육감..^^;;  
같은게 잘 맞아 떨어질때가 있더군요.

멀다는..그 추구의 목표가..어쩌면 훨씬 일찍  
성과를 가져 올지도 모른다..그런 뻘이..감지 될때가 있어요.

저마다..묵언으로..일상을 살고 있지만..  
16대 대통령님을 많이들..그리워하며..재발견 중일거다..  
그런생각이 든답니다.

노공이산님.유시민님의..어느 정치인들은..여전히  
송덩송덩 잘 못 믿겠어요.

생가복원도 순조로이 완성되고..  
뵙고싶어 그곳에 가면..친구처럼 친숙하게.

상봉 할수도 있고..그렇게 자연스럽고..쓸쓸하지 않은  
평온한 일상이 회복 되면..참 좋을텐데..

연두랑 2009.03.04 23:48

노장님 존경합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둘리엄마 2009.03.04 23:50

존경하고 사랑합니다.영원히...

찬밥연대 2009.03.04 23:56

많이 힘드실줄 압니다  
마음 편히가지시고  
건강하셔야합니다^^  
!!!!!!!노!무!현!짱!!!!!!!

kjj7011 2009.03.04 23:58

참 외롭고 힘들셨겠다는 말 외엔 말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여너^^γ 2009.03.05 00:01

노장님 언제든 복귀하십시오.. 아직 당신은 할일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 당신을위해 몸뿔을 뛰어줄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도요...

김치복음밥 2009.03.05 00:09

노공님..  
그간 건강하셨는지요..  
오랫만에 들어왔더니..님께서 글을 올려주셨군요..  
올려주신 글을 읽으면서 님의 마음자리를 보는것같아서..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  
웬지..오늘밤은 유난히도 창문밖이 조용한것 같네요..  
시끄러운곳은 TV속 밖에 없는것같습니다..  
...  
몇일전..마음이 끌려서 대구에있는 팔공산을 올랐었습니다..  
하나밖에없는 저의 여동생이 몸이 많이 아파서..마음도 착잡하여..  
그곳 약사여래불에 마음기도라도 해볼까하는 마음에서 그곳을 갔었지요..  
올라가는길은 많이 멀지는 않지만, 제법 가파른길과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더군요..  
그동안 운동이 부족했던지 많이 힘이들었습니다..숨이차고 힘들었지요..  
그때마다..중간에서서 잠시쉬곤했습니다..  
그런데..그때 허리가 기자로 굽은 노인한분이 나무지팡이를 잡고서..  
천천히 그곳을 올라오고 있더군요..이 젊은놈도 힘들어 쉬고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창피하기도하여 그 노인께서 올라가신 뒤를따라..저도 올라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앞서가시는 노인께서 중얼거리듯 하시는 말씀이 저의 마음을 자극  
하였습니다..  
"목적지만 자꾸바라보면 힘들어..한발한발 내딛다 보면 목적지에 언젠가는  
도달하는거야~!".."자꾸..목적지만 바라보면..저곳을 언젠가 도달할까..  
하는 마음땀에 올라가는데 힘들어~!".."오로지 한발한발 내딛는데 충실  
하면 힘들고 그곳에 도달하지.."노인의 말씀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엄청난 법문으로 다가왔습니다..상당한 마음공부가 되었지요..  
그노인의 말씀이 어디서나 접할수있는 평범한 이야기 이지만..  
막상 힘든상황에 접하게되면..그러한 마음자리가 쉽게 가져지지않는것  
같습니다..  
그노인 말씀대로 내딛는 한발한발에 충실하다보니 마음이 비워져서..  
번뇌도 사라지고..힘들지않게 정상에 도달하여,좋은기도를 할수있었습니다..  
.....  
우리가 지금은 힘들지 몰라도..내게주어진 상황에 성실히 충실하다보면..  
언젠가는 봄이 올것입니다..  
많은국민들은..노공님의 힘을 원하지 않을것입니다..  
오로지..노공님의 정신세계를 사랑하고있을것입니다..  
노공님..우리는 노공님과 함께하여..이세상이 사람사는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절한마음으로 바라고..기도하다보면 이루어지겠지요..  
노공님 항상 건강하셔야 합니다..^^\*

skkim4980@ 2009.03.05 00:16

그럼에도  
당신은 최고의 '머슴'이었습니다..\_O\_

비단장시 2009.03.05 00:21

그럼에도  
당신은 최고의 '머슴'이었습니다..\_O\_

그럼요 ..그럼요

소박한 들꽃 2009.03.05 00:24

반가운 마음에 빨리 클릭할려다가 다운이 걸려서 기다리고 기다리다 드디어  
들어왔습니다..모든 분들의 향한 마음이 모아져서 노무현대통령님  
계시는 곳에 따뜻한 사랑의 좋은 빛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토르(블루펄크) 2009.03.05 00:24

노공이산님...

노공이산님 저는 생각이 좁은 건지...아님 자기 중심적인 건지...

노공이산님의 고민은 한국 정치에 관한 글인데..저는 노공이산님 글을 읽으며 엉뚱한 생각을 하였습니다.

왜 양심껏 살면...바보가 되어야하고... 정치인을 존경하면...바르지 못한

사람이 되는걸까... 내가 진짜 멍청한건가...내가 속고 있는건가...

난 왜 실속이란게 없는 걸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 행동을 이해 못하는 타인의 시선 때문이지요.

꼭 그들의 이해를 원하지는 않지만, 나 같은 사람을 많이 만나기는 참

힘들겠구나... 아니 난 오히려 왕따구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도 많은데...왜 하필 정치인을 위해 봉사를 하는걸까

물론 이념이란 멋진 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멋진 말은 말 그대로

그냥 말인 것 같습니다. 현실은 너무 냉혹합니다.

현실과 타협을 할수록 제 옛 모습을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뒤편...옛 모습이 썩 좋았던 건 아니지만,, 순진함도 있었고, 낭만도 있었고, 정의?로움도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그런거 다 지

키며 사는게

참 바보같고 어리석고 멍청하고 실속 없는 사람처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상처만 남구요... 대통령님 글을 읽으면서... 아... 난 어떻게 해야하나 하는 고민을 해봅니다. 그런데... 세상이 저에게

조금만 양보를 해준다면 전 그냥 이렇게 쪽~ 살고 싶기도 합니다.

행복하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노공이산님은 제게 있어 정치인이라기 보다는 참 좋은 분이시다.

좋은 사람이다. 충분히 존경받으실 분이시다. 이런 시각에서 바라봐서 그런지 이런 답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제 마음이 가끔 현실 속에서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흔들림의 주체가 노공이산님이 아니라.. 아직 대한민국이란 현실이... 제가 참 바보구나... 실속없구나... 이런 생각이 제 내부에서 일

어날때 제 자신이 답답해집니다.

대륙 2009.03.05 00:37

가끔은 '푸틴'대통령과 '힐러리'국무장관의 용기와 제도가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저렇게 할 수 없는 것인가? 하고 혼잣말을  
지껄여봅니다.

후원회를 유지하면서 하시고자 하시던 일을, 생각하시고 계획하시던 일을 이뤄가실 수 있도록, '전직 대통령에 관한 예우의 법' 조  
항을 바꿔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정치인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정치인들이 갖는 마음가짐도 달라질 때도 되었는데...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희들이 다 알 것 같습니다.

너무 염려 마시지요, 잘 되겠지요.

그저 건안하시길 바랍니다^^

수니서니 2009.03.05 00:41

노짱님 힘내세요.

생크림 2009.03.05 00:55

힘내시고 건강하세요.^^\*

붓쟁이 2009.03.05 01:02

그저 한마디 하고 싶은것이 있다면.....

힘내시라는 말 밖엔.....

언젠간...언젠간.....꼭.....노짱님의..뜻을...이땅의 모든이들이.....알아줄날이 있을겁니다.....

푸른소나무@ 2009.03.05 01:05

정치인으로서 노대통령님의 고뇌가 느껴집니다.....

대통령님.....님이 있어서 그래도 희망은 있습니다.....

mcsolong 2009.03.05 01:08

대통령님,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정도행보 2009.03.05 01:11

노공님의 글이라고 마냥 좋아라 하며 보기엔

너무도 가슴 답답한 현실이 보입니다,

대부분의 정치인이 제기하신 문제에 대한 딜레마를

느끼고 있을 것이라 사료 됩니다.

끝이 없이 속제로 안고 가야할 문제인거 같기도 하고요.

투철한 애국심과 봉사정신으로 무장되지 않는다면

진정한 정치가 참 어렵겠더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누군가는 그길을 걸어야 하겠지요?

노짱님을 존경하고 신뢰하는 이유가 그 이유라 생각합니다.

많이도 외롭고 힘들게 그 가시밭길 마다하지 않으신...그 이유 말입니다.

편안하신 날들 되시길 기원합니다(꾸벅)

좌과 2009.03.05 01:47

텀 비어있던



머리속을 채워 주시는군요.  
보통 사람들은 정치인들 싸우는게  
실물이 난다고들 합니다.  
그러면 저는 우리 대통령님처럼  
정치인들은 싸워야 한다고 주장 합니다.  
자기 정당을 지지해주는  
국민들을 위해서 날마다 가열차게  
싸워야 합니다.  
늘 건강 하시길 기원 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대통령님♡

짱나라 2009.03.05 02:25

저도 놀랐습니다.. 제목만 보고 클릭했다가~ 허걱!!  
글로나마 자주 빌 수 있어 좋습니다.....

고민과 애정이 묻어나는 글입니다.  
주변에 정치인 길을 가는 이의 가족들이 고통을 겪고 있음을 알고 있기에  
꼭 한번 이 글을 읽어보라고 권해드려야겠습니다.  
신념만으로는, 그저 희망만으로는 치뤄야할 대가가 너무도 큰 거지요...  
하나, 그럼에도 그 길을 가는 고민하는 좋은 정치인들겐 고마움과 응원을 보냅니다.

고맙습니다. 대통령님^^

skkim4980@ 2009.03.05 03:48

"정치하지 마라."  
권유가 아닌 경고와 협박이 필요한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머슴이 주인을 서열화시키고 이간질시키고 교묘한 술책으로 주인을 속아매려 하고 있는 상황에서  
버르장머리 없는 머슴의 고충을 들어줄 너그러운 아량은 없습니다.  
희생은 바라지도 않았습니니다.  
그들이 4년의 봉사로 명예와 부를 택했다면 그에 응당한 몫을 충실하게 해야하지만  
눈치빠른 머슴은 힘센 주인의 비호와 감시에 웃고 우는 꼭두각시 노릇이나 하려하니  
오직, 예전의 멋멋하고 당당한 위치로 되돌아가기 위한 힘없고 가난한 주인들의 뉘두리가 안타까울 뿐입니다.

염화시중 2009.03.05 04:11

....!

겨울그림 2009.03.05 05:53

노공님 글을 읽으니  
목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목소리 듣고 싶네요^^

매그놀리아 2009.03.05 08:14

당신은..  
역시 멋진 분이십니다..!  
뵙고 싶어요...

山形 2009.03.05 08:45

역쉬!!!  
노짱님 힘내세요^^

didfks 2009.03.05 08:58

마음이 많이 답답한 아침이었는데, 노짱님! 글 보면서 행복해집니다.  
왜, 난 이리 노짱님이 좋을까? 생각해보았더니, 이유가 너무 많더라고요.  
ㅋㅋㅋ 노짱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아프지마세요. 전 하루에 3번 국민체조를 하는데, 도움이 꽤 되더라고요.

시인의노래 2009.03.05 09:25

많이 힘들실 거라는 생각은 늘 했었습니다.

칼루아 2009.03.05 09:35

"정치하지 마라"..

넵~!^^

노짱님 그렇게 하겠습니까..  
훌륭한 시민으로 살겠습니까...

노짱님의 말씀대로..  
정치인의 입장도 좀 배려해보겠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부분의 화두를 던져 주셔서..

생각한다고...제 머리털이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ㅎ

노짱님의 글에..  
댓글을 달 수 있어서..참으로 영광입니다...ㅋ

노랑매실 2009.03.05 09:35

그렇습니다  
정치는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사람이 하기에는 너무도 살벌하고 무서운 직업일 겁니다. 그렇지만 누군가는 해야될 않을까요  
잘하면 잘하는데로 욕 먹고 못하면 못하는데로 더 욕 먹고 어차피 해야 한다면 조금이라도 바른생각을 갖고 약자를 배려해줄아는  
사람이 해야만 사회가 건전해 질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의는 노무현후보를 선택했던것이구요  
오늘 말씀에는 가슴이 아프네요  
젊은시절의 노공이산님이 그림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잃은것이 많을지 모르나  
대한민국에는 님께서 주신 선물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내 건강하십시오...

광개토왕 2009.03.05 09:38

기분.. 좋습니다..사랑해요...

샤프심플 2009.03.05 09:55

너무 뵘고 싶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님! 청와대 계실때가 너무 그림습니다  
한숨만 나오는 지금에 비하면 당시에는 행복했다라는것을 깨닫습니다

바른생활2 2009.03.05 09:57

참되게 살라.  
그리하면 그대 인생이  
위대하고 고귀한 신념이 되리라.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고시생입니다. 사회적인 문제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어지럽고 혼탁한 현실을 볼 때마다,그 가운데에서도 누군가에게 (저에게^^)  
밝은 빛이 되어주신 분을 뵈때면 이 구절을 생각합니다.

소상공인 2009.03.05 10:06

사랑합니다. 많이..님의 이름만으로 가슴이 울컥해 집니다. 감히 님의 글에 의견을 달기가 무섭습니다. 그냥 마냥 사랑합니다. 많  
이.....

칸(khan) 2009.03.05 10:08

오늘의 칼럼으로 라디오21 생방송으로 읽겠습니다..  
화이팅!!!!

하늘우러러 2009.03.05 10:13

고맙습니다. 깊이 읽고 새기고 있습니다.  
뵘고 싶은 마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만 조금 참아야겠지요...  
좋은 날 대통령님이 정말 편안해지셨을 때  
편안한 웃음 웃는 모습 뵈 수 있기 소망합니다.  
두 분 모두 건강하세요^^\*

들꽃짱 2009.03.05 10:22

건강하세요.

HUBO 2009.03.05 10:38

공감합니다.. 전적으로..^^

그러나 대통령님께서 추구하셨던 그 꿈과 희망을 잃고 싶지가 않습니다.  
보통사람들의 생각이 상식이 되고 가치가 되고 그리고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세상....

시대가 영웅을 만드는 법이라고 배웠습니다.  
난세에 영웅이 태어 난다고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일까요.. 전 대통령님을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아스 2009.03.05 10:55

저도 병이 생겼습니다 세상 돌아가는것이 제맘과 맞지 않습니다  
오직 관심을 두고 싶은것이 대통령님 근황입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어는것이 좀더 나은 율바를일까 그정도 고민밖에 할수없는 소인배 이지만  
유일한 희망이 대통령님이 십니다 다시 정치를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항상 보탬이 될수 있는 말씀으로 저는 충분 하답니다  
대통령님을 흠모하는 온백성중 한명이.....

KS CEO 2009.03.05 10:55

저도 훗날 정치를 해보려고 마음의 준비도 하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과연 무엇을 위해 정치를 하는가하는 자성의 시간을 가지게 됐  
습니다..다시한번 무엇을 위해 정치를 하려는가?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한번 심도있게 생각해봐야 겠습니다..좋은 글 감사합니  
다..아울러 우리나라 정치가 앞으로는 우려하신대로 되지 않길 조심스레 기원해봅니다..

너도나처럼 2009.03.05 10:57

퇴임 후 이런 진솔한 글을 당당하게 쓸 수 있는 정치인이 대한민국에 또 있을까요...

존경합니다...

gamsa 2009.03.05 10:57

이런 점에서 노대통령님을 존경합니다..

참 공감어 가는 글..

꼭 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자리를 떠나면 그 빈 자리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진정으로..

상가을 2009.03.05 11:02

사랑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어제밤 꿈에 노장님이 나와서 아침에 마누님에게 로또사야 겠다고

하고 나왔는데 ㅋㅋㅋ

우리 마누님할 : 1등 될까

나 할: 혹 내가 이꿈꾸어서 1등 되면 년 국물도 없다 ㅋㅋ

어찌되었것

사랑합니다

그리움이 사무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노더블 2009.03.05 11:02

저는 옛날부터 그냥 대통령님을 좋아했습니다. 하시는 일들이 저하고 배짱이 딱 맞았거든요. 대통령님의 진심은 "정치, 하지마라"가 아니라 "정치, 똑바로 하라"인 것으로 이해합니다. 근데 아무리 똑바로 해도 상대방이 그렇게 하지 않으니 문제가 아닌가요? 그렇다고 안할수도 없고..... 일례로 2003년 대북송금특검법만 해도 그렇습니다. 국민관심도 있고, 원내1당인 야당이 의결해 왔으니, 새정치, 화합 또는 정치 파트너로서의 관계를 고려해서 거부권 행사를 안했더니 대통령을 마치 허수아비로 알고 5년동안 그렇게 반대로 일관하는 그런 집단과 무슨 정치가 됩니까? 지난 5년이 너무 억울합니다만 또 다음을 기약하면서 죽은 듯 살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구영탄 2009.03.05 11:02

글만 봐도 마음 따뜻합니다.

홍인지문 2009.03.05 11:02

<春來 不似春>이란 말을 절감하고 게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노공이산님 곁에는 든든하게 지지하는 여러분들이 계시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힘내십시오...달라이라마님의 말씀 중에 이런 구절이 생각나네요.<문제에 해결책이 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해결책이 없다면, 역시 걱정해도 소용없는 일이다.>

지니랑 2009.03.05 11:10

대한민국 현직 정치인 중 존경을 받는 정치인 없다는 점...

그것이 해답이라고 봅니다. 모략과 술수와 돈에 좌우하고 자신의 지역구

이기주의가 한 몫 했기에 그렇지요...면 미래를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자신의 앞만 보고 있으니 어렵고 힘들고 자신의 이권 창출만 골몰 하는것

입니다. 하지만, 썩은 것은 도려내야 하고 정화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피해 버린다면 그것 또한 사회발전이 안되는 것이지요...

또 다른 나무를 심어야 썩이 트고 자라는 것이라 생각 합니다.

돈나무 2009.03.05 11:10

노장님의 고뇌가 전해져와 마음이 아픕니다..그 깊이를 짐작할수 없는 고통을 감내하신 분을..아프지만 다시 한번 당당하게 이의 있습니다! 사자후를 날려주시길 기대하니...참 죄송합니다..혹 ㅠㅠ

한용아빠 2009.03.05 11:10

그 때는...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나도...참 살맛났었는데요...

그 때는...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나도...참 통쾌했었는데요...

그 때는...우리나라가 좋아서...외국취업이 되었어도 가지 않았었는데요.

그 때는...우리나라가 좋아서...행복했었는데요...

지금은...누가 해하지 않는데도...왜 답답하고 불안한걸까요?

지금은...왜 당신이 이다지도 그리운걸까요?

보고싶습니다

노무현알러뷰 2009.03.05 11:19

'최소한'을 아는 사람....

'최소한'이 무엇인지를 알고 실천하는 양심있는 전직대통령.....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서피랑 2009.03.05 11:26

강녕하시길 기원합니다.

반하 2009.03.05 11:30

정치와 돈, 실패에 대하여 등 많은 얘기 들려주세요

그게 교훈이든 푸념이든 어리석은 백성들에겐 등불이 될것입니다

모쪼록 건강 유지하시어 하시고싶은 말씀 남기고고싶은 글 쪽...

사랑합니다 노장님...

꿈그리고바다 2009.03.05 11:33

^^ 살 맛나는 내일을 기다려봅니다...그냥 마음 편히 읽을수 있는 기사가 늘었으면 좋구요...그때를 기다려봅니다...하지만 요즘엔 갖

은 자 1명이 5,000만 국민의 입과 귀를 막을수 있고...같은 자 1인에게 발상 차리는 0.1%가 대한민국의 현재와 내일을 그들의 그림으로 바꿔버릴수 있다는걸 느낍니다....

항상 건강챙기시구요....허리는 괜찮으신지?...  
화이팅입니다

매뚜기아빠 2009.03.05 11:44

짧은 글이지만  
정치인으로서 살아오시면서 느껴오신 인간적인 감회를 보고 제 마음도 아픕니다.  
공인으로 살기 위해선 포기할 수 밖에 없는 개인적인 일들...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서 사회의 정의를 이루고자 노력하셨음에도  
사회가 그리 달라지지 않았고  
부패한 세력들이 다시 제 세상 만나 천방지축 모양으로 예전의 모습으로 복귀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니...  
그 결과가 초라해 보임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많은 국민들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희망을 심어 놓으신 좋은 결과도 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유시민님이 그런 말을 했죠?  
서구의 민주주의 제도를 아무런 댓가도 치루지 않고 가져와 사용하는 우리는  
그 댓가를 후불제로 치루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라는 말.

이제서 댓가를 치루더라도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등이 숙성되기 위해선  
이 정권조차 겪고 지나가야 할 모양입니다.

부디 이런 댓가를 치루면서  
노무현님같은 그런 성정의 후배들이 정치 일선에서 더 많이 뿔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도 조성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천마리학 2009.03.05 11:44

존경합니다!!!  
대통령과 국민과의 의사를 소통할수 있는 장르를 이렇게 만드신 분은 그대 뿐입니다. 이러한 장르를 통해서라도 먼저 경험하신 노  
하우를 후배 정치인, 미래의 정치인 야망자에게 과란색 신호등이 되어 준다고 봅니다.  
지금 같이 이 어려운 시대에 말씀 하신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희생양이 되고요 < 맞습니다. 맞고요 라는 유행어도 잠깐 생각>  
지금 현재 사회는 너나 할것이 구조조정을 하여 살아 불라고 뼈를 깎는 몸부림을 치는 이 마당에 국회에서의 꼴볼건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런 정치놈들은 왜 구조조정을 알하는지 정말 아이러니 합니다.  
국민에게 민폐끼치는 의원수도 이제 정말 숫자를 줄일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값고, 슬피고 짜증이 나서 몇자 적어 봅니다.  
노대통령님 힘내시고, 정치 노하우 3단을 베풀고 이끌어 주셔야  
과란색 희망의 신호등이 찬란하게 보입니다. 하이팅

개울건너 2009.03.05 11:51

노무현님은  
바람직한 세상과 냉혹한 현실세계 사이속에서 가장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냉혹한 현실세계에서도  
바람직한 이웃과 공동체를 위하여 마음을 내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많이 몸과 마음을 많이 다치시고 지치셨을 것입니다.

그래도 남은 뒤따라 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정표를 제시하여 주신 분이십니다.  
민초들은 그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갈 것입니다.

희망을 이야기하는 한 세상은 살아불만하다 라는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젊은태양 2009.03.05 11:52

님이 아니라면 누구라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님이 아니고 누가 이런 얘길 한들, 그 진정성이 먹히겠습니까.

님이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것 하나만으로도님은 기적입니다.

노짱님, 힘내세요~

이덕쇠 2009.03.05 11:54

사랑합니다 그리고 정말 존경합니다

설빈 2009.03.05 11:55

경북 포항에서도 노 전 대통령님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노빠^^ 2009.03.05 12:00

따스한 봄날이 오길 참 기다렸습니다  
봉화마을 꼭 가보려구요...그래서 내가 유일하게 존경하는 정치인 노무현님을 만나뵙고싶어서요^^ 당신이 떠나고 나서야 우리나라  
가 얼마나 무섭고 탐욕스런 존재들이 있었는지 그 힘이 어떠한지 알게 되었어요  
어떻게 견디셨나요...그 소신 지키시며..타협하지 않으시며  
얼마나 외로우셨나요...그들을 위한 정책인데 그들마저 이유없이 욕을하는 고통을..이제 당당히 말합니다 당신은 제 마음속에 유일  
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당신을 존경한다고 힘내세요. 봄날에 꼭 찾아뵙게요 사진한장 꼬 같이 찍어주세요

.. ... ~ ~ .. ~ ~ ^ ^

피안의새 2009.03.05 12:03  
주인이 알아주지않는 머슴이란 말씀.....  
절절히 와 닿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mh669 2009.03.05 12:03

감사합니다 노대통령님 처럼 불의 부정에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한길(正導)가시는 정치인이 그리워 집니다. 비록 가난하게 살고 노년 이 힘들더라도 후세의 귀감이 되는 삶이 더 중요합니다

후천적노사모 2009.03.05 12:09

시간이 지나야 뚜렷히 보이는 길이 있다고 믿습니다

믿고 기다려 주시면 안될지요?

dooki 2009.03.05 12:27

너무 지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정치한계가 너무 눈에 보이는군요.

존경하는노무현 2009.03.05 12:37

노공이산님 농번기라 바쁘실텐데 좋은 글 올려주셔서 감사 합니다 몇일전 뉴스를 보니 국민 보고 법지키라더니 정부와 정치인들이 더 안지킨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개탄할 일입니다 허구헌날 정치가 잘못 되었다니 정치인들은 안된다니 하면서 그런 사람들 뽑아 주는 게 국민들 아닙니까 이시대 대한민국 자화상이 바로 대한민국 국회 입니다 답답합니다 노공이산님은 오죽 하시겠습니까 예 해~

엔돌핀가득 2009.03.05 12:44

우리나라의 참정치인이시자 지도자이신 노무현대통령님 존경합니다.

지산이 2009.03.05 12:57

대통령님의 말씀대로 정치인이 달라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옳은길이 아닌줄 뻔히 알면서도 당리당락에 따라 행동하는 꼭두각사가 아닌 진정 국민의 편에서 고민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양심있는 정치인들이 되기를...그러면 몇년내에 아주 잘사는 강한선진국이 될거라 믿습니다.

화용윙태 2009.03.05 13:02

오랜만에 뵈니 다행이다 싶기도하고.. 정을 끊어버리시면 어찌나..했습니다  
건강하시고 글로나마 자주 썼으면 합니다. 율한해 건승하시고 많은 밑거름을 그려주시길 바랍니다.

가행수 2009.03.05 13:07

저는 정치인이나 공인들이 사생활적으로는 많이 힘들 것이라는 짐작 정도는 했었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힘든 부분이 있었다는 사실은 오늘 처음 알았어요..

노공님의 말씀대로 시민들도 정치인에 대한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시민들이 정치인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만이 정치인들도 바른 신념을 가지고 일을 하고 그러다보면 사회문제도 그나마 최소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moira0817 2009.03.05 13:09

노대통령님...  
글 잘 읽었습니다.  
역시 노짱다우십니다.  
언제쯤 노대통령님같은 지도자를 만날까요?  
역시 대선때 노짱님을 찍은 제 손이 안부끄럽습니다.  
자주 글 올려주세요!!!

초코뷰의불빛 2009.03.05 13:09

침묵하는 다수의 한사람입니다. 무지몽매한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늘 정의로움에 목마른 다수의 한사람입니다.  
대통령님! 늘 올바름의 정의로 늘 국민곁에서 같이 하여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늘 따뜻한 우리 대통령님!

ukumchi 2009.03.05 13:12

건강하십시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모두들 잘 할 것으로 믿으십시오

람보2 2009.03.05 13:15

ㅎㅎㅎ 재미있기도 하고요.... 슬프기도 하고요.... 뭐 아무튼 인간적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현실 정치는 매우 비인간적이니 노무현님의 말씀이 맞는 말 같기는 한데....

殺佛殺祖 2009.03.05 13:18

노짱님이 이토록 그리운것은 지금의 현실이 너무 쓰레기같기 때문이겠지요! 추억속에만 노짱님을 가두어 두기에는 현실이 너무 무능하고 힘드네요~

훈사마 2009.03.05 13:21

노무현 대통령님... 글잘읽었습니다  
어느정도 고민해보았던 얘기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솔직 담백하게 그들의 얘기를 알수있는것이 없지요  
이젠 그들에 대한 미움도 다시 고려해볼 필요는 있겠네요

종희아빠 2009.03.05 13:22

그동안 대통령님의 고통, 고독이 조금이나마 보이는것 같습니다.  
대통령님과 같은 분이 정치를 하셨기에, 저는 그나마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혁신마보 2009.03.05 13:27

맞습니다. 그런 현실이 우리의 정치를 또 그렇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야 아픈 상처가 조금은 통증이 덜해질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인생을 후회할 수 밖에 없듯이 인간이 모인 사회의 속성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건강을 회복하시고 꾀박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동마루부동산 2009.03.05 13:42

님의 포효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  
봄날에는 용안을 뵙기를 기원합니다.

독일병정 2009.03.05 13:43

정치인들의 입장을 그동안 짐작은 했습니다만,  
노대통령님의 말씀을 읽고보니 실상이 깊게 느껴집니다.

정치인들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 정치를 잘 할 수 있도록  
여건이 만들어 지길 바랍니다.

달피인 2009.03.05 13:45

그래도 누군가는해야되구여  
언젠가는 자신이지나온 정치에깊이 보람있었다고 생각있었다고 여겨지는 자랑스런정치인이 많이 나와야겠지요.

노대통령님  
님은현직에있을때나 지금이나 괴로우시겠지만

훗날 보람을 느낄때가있을겁니다.

저는 지금도 님을위해 뛰던때가 자랑스럽습니다.

효자동 2009.03.05 13:48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힘내시구요..건강하십시오.  
언제어디서나 노공님을 응원하겠습니다!!

하지마루 2009.03.05 13:53

오늘 조선일보 코멘트보고 위로의말씀 드리려 왔습니다..님의 노력으로 님께서 느끼는 많은 것들이 이젠 수면위로 올라왔고 누구보다이기려 했기에 후배정치인들에겐 좀더 나은 미래가 열리는 시작이 되리라생각됩니다..또한 정치인모두가 거것이 상식이라 물들어 있는 관념을 깨신 당사자이기도 하지요..취임초기 우리모든대통령들은 위대하다고 말씀하신거 기억합니다..님께서도 선진 민주화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신거 역사가 기억할겁니다..국민의 의식이 부족하여 물론 선진한국의 과정이겠지만..올바른 정치인에게 따뜻함을 주지못하고 따뜻함을 받으려고만하는 .. 자신의 이익에만 이기적인.. 그러한 사람들에의해 정치인들이 어쩔 수없이 그의 논리들에 빠져들어가는... 허나 님께서의 그러한 아쉬움의 시작.. 그리고 부족함마저.. 후배정치인 지성있는 국민들에게.. 또다른 불씨가 벌써 되고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너무아파 하지마세요..

중간이 2009.03.05 13:55

많은 사람들에게 섭섭한 것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정치에 보여준 높은 관심을 왜 노대통령님 계실때 보여주지 않았는지, 그래서 쓰레기 언론들이 합부로 왜곡해도 속수무책이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국민들이 정치에 신경쓰지 않아도 좋을만큼의 세월이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언젠가는 다시 정치에 신경안써도 될 좋은 세상이 오길 기대하지만 지금은 저 스스로 그 쪽 이야기는 보고 듣기도 싫을 정도로 혐오스럽기만 합니다.

사계절 2009.03.05 13:59

결국은 주권자인 국민의 의식수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부단한 헌신과 노력은  
언젠가 이땅에 자유와 평등을 정의롭게 구현하고자 하는 젊은이들에게  
희망의 빛이 될것입니다.

보미니&성우 2009.03.05 14:10

존경하는 노공님!!! 몇가지 없으신것도 있지만 노공님이 찍은 점에 윤기나게  
기름칠 하고 더 빛나게 빛나게 하는 민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공께서는 이제 공인으로 자연인으로 봉하에서 이나라의 자연과 이나라 농민들과 함께... 멋진 미래를 건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인이란 꼬리표 때문에 적어야 할 불편함을 이자연에서 우리와 우리농민과 함께 같이 조금씩 물어 버리시지요.

박영길 2009.03.05 14:16

한국 정치가 좀 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 정치가 달라지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이 먼저 달라져야 할 것, 시민들의 이해, 주인이 알아주지 않는 머슴들은 결코 훌륭한 일꾼이 될 수가 없다. ← 공감합니다

안성사랑 2009.03.05 14:16

오늘 수업시간에 벌써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네요.  
선생님 강의가 하나하나 귀에 들어옵니다.  
벌써 다음 수업시간이 기다려집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각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주위에 계신 분들도 함께 참석하시길

수박한통 2009.03.05 14:36

님 계신 봉하에도 봄은 오고 있겠지요..  
조심스런 봄비가 내리는 오후입니다.  
무거운 하늘 만큼이나 쓸쓸함이 전해지는 글이라 가슴한켠 아련해 옵니다..

언제쯤 웃음가득 턴 모습을 뵈을까.. 그립습니다..

늘 강건하세요

없음 2009.03.05 14:56

힘듭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노공이산님이 누구십니까?  
호시우행.  
또박또박 악랄하게..

우췌던  
노사모를 세상에 있게 한 분이 아닙니까?

그야말로 노공이산.

깊은 절망속에 숨은 과란 희망의 싹.  
앞으로 더욱 열심히 많은 숙제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아줌마 2009.03.05 15:00

저는 님을 정치인이라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정치인이라는 개념과는 너무나 차별화되신 분입니다.  
아마도 이 글에서 말씀하신 정치인의 속성을 잘 이해하시고 뚜렷하고 정직한 정치철학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시며 살아오셔서 그렇지 않으셨나 감히 생각해봅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조만간 다시 좋은 글로 뵈길 바랍니다.

굽~벙이 2009.03.05 15:08

아주 오래된 일입니다..노공이산님께서 여사님과함께 단 두분에서 초량 뒷골목을 다니시던 때가 떠오릅니다.부산진역앞에 사무실이 그때 그시절에도 초라했었지요..다만 존경합니다.라는 말밖에 못 올립니다..건강하십시오...

눈비맞고있는 2009.03.05 15:10

마음속 깊이 공감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같이 모자란 사람은  
하지말라면 더 하고 싶은, 도저히 가질수 없는 것에 대한 막연한  
동경심과 주체할 수 없는 욕심이 더 생깁니다. 한대 맞아야겠죠?

별꽃바람1 2009.03.05 15:16

1주년 1219행사에서 여의도의 칼바람을 맞으며 하신 말씀이 생생합니다.

"정치는 우리 생활 모든 것과 관련이 있다. 정치를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이 땅에 1,2급수의 정치인이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고 절망하지 말고 국민이 나서서 3,4급수의 정치인을 1,2급수 정치인으로 정화시켜야 한다."

그렇게 시민혁명을 역설했던 대통령님의 고뇌를 기억합니다. 대통령이 되시고 존안자료를 보셨을 때 느끼셨을 압담함 말입니다. 그런 인물들 중에 그마 나는 사람을 가려 뽑으시려니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럼에도 정치는 꼭 필요한 것이라고 역설하셨는데.ㅠㅠ

이제 정치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니 가슴이 아픕니다.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런 말씀을 하실까? 임기 중 늘 우리 국민을 믿으신다고 하셨던 대통령님. 그러나 우리 국민에게 남은 너무 과분한 존재였습니다.ㅠㅠ

지금 빠져리게 느끼는 국민들이 하나 둘 늘어가고 있지만 아직 멀었습니다.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 빠져서 참여정부 시절 찌라시 좇 선일보를 읽게 된다면 꿈에서 깨어날까. 우리 국민들은 무지와 탐욕이 빛은 업보에 고통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죄없는 어린 세대들은 어떤 희망을 갖어야 할까요? 노무현대통령의 심분의 1이라도 맑은 정치가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님이 우리 정치의 선구자였다면 그 뜻을 받드는 후배 정치인이 넘쳐나야 이 나라에 희망이 있습니다.

가진자의 정치, 기득권의 정치, 쓰레기지식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정치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힘드시더라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진정으로 일할 진정한 정치인에게 힘을 밀어 주십시오.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올해도 뵈러 가겠습니다.

보리과 2009.03.05 15:30

좋은 대통령을 가져본 나라에서 살고 있어 행복하지요^^.아자~

푸를른술아 2009.03.05 15:31

노짱 짱\_0\_

덕유산호랑이 2009.03.05 15:34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던 님의 말씀 꼬습게 실감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멋있다 2009.03.05 15:45

좋아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의 이름은 수첩의 맨앞에 적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은 가슴에 새기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은 그에 대해 아는것이 많은 사람이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그에 대해 알고 싶은 것이 더 많은 사람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은 눈을 크게뜨고 보고싶은 사람이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눈을 감아야 볼수있는 사람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은 똑같은 선물을 나누어 갖고 싶은 사람이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그에게 줄 선물로도 늘 주머니가 가난합니다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내 생일이 기다려지지만  
사랑하는사람 앞에서는 그의 생일이 기다려 집니다

좋아하는 사람은 친구들과 어울려도 즐거울수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오직 나하고만 있어야 기쁜것 입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헤어질 땐 아쉽지만 돌아서는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은 함께 있는 이 순간에도 아쉬움으로 느껴 집니다

그래서...

우정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가슴벅찬 느낌표지만  
사랑은 곁에 있을수록 확인하고픈 물음표입니다.

- 좋은글 중에서 -

십분의 팔 2009.03.05 15:49

요즘 마음이 많이 아프신가요???  
저도 나이 마흔 넘어 태어나서 제일 힘든 시기를 보내다보니...  
힘이 듭니다.  
힘이 드니...노견대통령이 생각나더군요....  
힘내십시오...  
어려운 국민들에게 또다시 힘이되어주는 분으로  
굳건하게 버티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서사람 2009.03.05 15:54

대통령님을 헐뜯는 하이에나들이 별떼처럼 몰려들어도,  
님을 향한 일편단심 변함없습니다.  
어려운 날이 빨리 지나가기를...  
대통령님 생각만으로 희망이 생깁니다.

레일맨 2009.03.05 16:01

짜증나고, 화가지밀어 죽겠습니다.  
어째!!! 거시기 인간들은 나라를 1년만에 이렇게 말아먹을까요?????

그래도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립습니다.

술가실 2009.03.05 16:09

글을보면 반갑고 좋긴하지만 밤에 안주무시고 글을리시다가 흑이라도 건강해칠까걱정됩니다.(사실은제가 자는시간에올리면 다  
큰사람보다 늦게보게되...ㅋㅋ)

거창때기 2009.03.05 16:19

나의 우리의 영원한 대통령님 건강 하시지예..^^  
전 대통령님께 더 이상 저 더러운 구경물이 티지 않기를  
마음으로 기도 드립니다.  
대통령님 마음 편 할 날 오기를 기다리고 고대합니다.....

kb0841 2009.03.05 16:21

대통령님은 언제나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마침맑은하늘같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힘내십시오

유다서 2009.03.05 16:33

정치아닌 정치지기?

cjsals 2009.03.05 16:47

노대통령님덕분에 우리 정치문화가 발전하였는데... 권위의식이 많이 사라졌는데.... 쓰레기 신문들과 이상한 기득권층에 의해 노대  
통령님의 업적이 훼손되는 것에 대해 안타깝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힘내시고 계속 정치발전을 위해 글 올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니다^

조동관 2009.03.05 18:03

올려 주시는 글 찬찬이 읽고 이렇게 댓글다는 행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치하시면서 느꼈을 고통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파옵니다.  
우리 노짱님같은 정치인이 다시 한 번 나타나길 고대해 봅니다.  
건강하시고 내내 행복하시길 빕니다.....

쿵푸치타 2009.03.05 18:06

저의 영원한 대통령이기예~ 가입하게되어 첫글을 써봅니다. 요즘 참..착잡하죠..사람은 자기에게 맞는 그릇이 있거늘..지금은 자  
기 그릇의 크기를 모르고 돈으로 해결하려하죠..참..저같은서민은 어떻게 살아가란건지..ㅎㅎㅎ참..돈이란게 뭘지 ㅎㅎㅎ 노대  
통령님 힘내세요!!

산청촌놈 2009.03.05 18:20

결국 돈도 친구도 없는 노후를 보낼 가능성이 어느 직업보다 높을 것입니다.라고 하신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역시 정치를해 보겠다  
고 까불다가 패가망신하고 지금은 장애인이 되어 병든 몸을 이끌고 하후하루 살아가는 불쌍한 인간입니다.

마음 2009.03.05 18:54

말씀을 읽으면서 제게는 이렇게 들리더군요



정치를 하지 마라~ 가 아니고 정치를 하려면 마음을 단단히 먹고 여러가지 어려움을 기꺼이 감수할 준비를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편으로는 지금 많이 힘드시구나.. 그런 생각도 들구요..  
세상에 공존할수 없는 두가지를 다 가질수는 없는 것이겠지요.  
지금까지 "참여"를 늘 주장하셨는데 이글에서는 반대의 느낌이 드네요...ㅎ

날(?)이 풀릴 때까지 몸건강하시구요. 마음도 꼭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도 2009.03.05 18:56

노장님 글 또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여전히 가슴 한구석이 찡하기만 합니다..  
이런분들이... 왜 이런곳에 있어야만 하는지.. 여의도나 청와대에는 왜 저런 인간들만 있는지.. 허나 그것도 국민이 선택한것이겠  
죠..  
그 깊은 터널에서 우리는 여전히 헤메고 있는거 같습니다..  
노장님이 원하고 우리가 원하는 그곳에 언제 닿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돌아돌아 더 멀어지기만 하는거 같아 더욱 가슴이 시려  
웁니다..  
항상 강건하세요..

빨소 2009.03.05 19:11

자신의 지혜가 없음을 탓하지 않고,  
여건 탓으로만 돌리게 되면 발전은 영원히 없는 것이다.

정치사실단체라는 지하단체를 운영해야 한다는 비도덕적인 사고로 파악 있으니 이런 변명이 나오는 것이지 올바른 정치개혁을 해  
야겠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런 변명은 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임기를 5년 단임제에서 연임제로 바꾸고 또한 지하정치에서 빠져나와 제도권의 정당정치형태로 운영하여야 할 것이  
다.

정당을 인제의 보고와 싱크탱크로 만들 생각은 아니하고 뭔가 꾸린내가 나는 정치 사설 단체나 만들어 국민을 현혹하는 것되거나  
하니 국민으로부터 외면을 받게 되고 돈은 돈대로 허비하는 것이다.

제발 자신의 지혜없을 탓하지 영똥한 변명은 하지 말기 바란다.

꿈을향해서 2009.03.05 19:13

좋은 글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지 강 2009.03.05 19:17

노무현이란 사람때문에 너무 즐거웠는데... 당신이 보여주던 많은것들에,  
당신을 인정하는 많은 사람들을 부정지마세요.

현재와미래 2009.03.05 19:35

노무현 대통령님은 지나치게 겸손하십니다.  
인내심은 또 왜 그렇게 많으신지, 어떨때는 좀 투덜대시고  
원망도 하시고 하시면 인간적으로 보이시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노무현 대통령님께서서는 유능하시고, 청렴하시며, 책임감있으시고  
신뢰와 도덕으로 조적을 잘 이끄시고, 상대방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실수로부터 배울줄 아시고, 국가의 미래를 보는 안목과  
통찰력,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으시는 희생정신이  
있으신 분입니다.

하지만, 제가 노무현 대통령님을 존경하는것은 위에 적은 이유때문  
이 아닙니다. 제가 노무현 대통령님을 존경하는 것은 아무리 불리한 최악의  
조건에도 원칙을 지키시면서 늘 최선의 노력을 다하셨기 때문입니다.  
권력을 쥐기위한 도구쯤으로 국민을 대하신게 아니라 국민들을  
정말 떠맡고 어떻게하면 더 편안하게 할까 공부하고 노력하셨다는 겁니다.  
노대통령님을 싫어하는 세력들도 노무현 대통령님은 적대시하지 않  
셨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께서는 역시 보호하고 보살필 국민의 일원일 뿐이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자신은 실패했다, 이문  
계 별로 없다고 말씀하십니다만, 노무현 대통령님은 5년간의 업적 뿐만아니라, 삶 자체로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법을 지키라  
는 말보다는 본인이 먼저 솔선수범하시어서  
국민들이 보고 따르게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님 같이 사심없이, 국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서 일할 그런분들만 정치하고, 그럴 자신 없는 사람들은  
정말 정치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판에는 하지말아야할 사람들이 너무 많네요.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대통령님은 그냥 존재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국민들한테 큰 버팀목이 되고 위안이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저희에게  
희망과 그 크신 지혜와 안목을 나누어 주십시오. 이렇게 글로라도 만나뵈  
수 있다니 정말 감사드리고 영광입니다.

최준혁 2009.03.05 19:38

저는 솔직히 노대통령님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흔히 말하는 노빠는 아니죠,, 하지만 이 글을 인터넷신문으로 읽고 이 사  
이트까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정치판에 대해 말해주길 바랬는데,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이런 진솔한 글을 쓰니 정말로 좋군요..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고, 많이 배워가겠습니다.

가을갯마을 2009.03.05 19:46

정치인은 국민의 머슴이며 또한 리더인 것처럼 양면성을 동시에 가지는 것이

아닐런지요. 노각하처럼 양쪽을 아우른 정치인은 흔하지 않지요.

힘 내시길 바랍니다.

ahadoo 2009.03.05 19:55

다시 행복해지는거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과랑 2009.03.05 20:05

진정한 정치인이려면, 바로 이렇게 생각하실것입니다,,나를 버리고 민중을 위해 모든것을 마쳐야만 하는 것이 바로 정치란 것이지요,,근데, 오늘날은 왜 이렇게도 정치를 하려고 발버둥을 치는건지요,,누군가를 부리기위해 정치를 하는건가요? 자신들의 돈벌이를 위해서 정치를 하는건가요?? 그렇다면 진정한 정치인이 아닙니다,,정치인은 바로 노광님의 이 글과도 같이 때문이죠,,이 글을 읽는 바로 당신!!자신을 안전히 버리면서 민중을 위해 일할수있나요??

불편과연필 2009.03.05 20:07

존경할수밖에 없는 노대통령님...건강하십시오.님은 정말 너무 정직한 대통령이였습니다...진실과 거짓의 결과가 어떤것인지를 이제서야 국민들은 후회하고있습니다.

멋 2009.03.05 20:45

역시 존경스럽습니다.ㄷ(-\_-ㄷ)

포돌이엄마 2009.03.05 20:48

항상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봉하로 고고생 하겠습니다^^

sumi51 2009.03.05 20:53

아무리 시민으로 돌아갔다지만 대통령이란 임금님같은 분인데 그분과 이렇게 함께하고 댓글을 다는 세상이 되었다니 기분이 좋고 제가 무어라도 된듯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해서 행복한 시민 드림  
그리고 댓글의 진정성에서 어떤 소설 시보다도 더 재밌습니다.

무우 2009.03.05 21:03

언제든지 저는 노무현대통령편입니다..사랑해요..

죽도사람 2009.03.05 21:43

오랜시간 힘드셨겠죠 건강 하시고 좋은 고연들 부탁 드립니다

황석산 2009.03.05 21:48

글을 읽고 나니 노짱님이 미치도록 보고 싶어집니다.

이급수 2009.03.05 22:01

글 잘 봤습니다. 대통령님의 매력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글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비밀정원 2009.03.05 22:13

늦은 시각에 다녀가신걸 보니 생각이 깊으신가봅니다.  
힘내십시오~~~노짱님.

광주싸나이 2009.03.05 22:15

늘 지금쯤 무엇을 생각하고 준비하고 계실까?? 궁금했습니다..  
대통령님,,대의민주주의체제속에 당신에게 우리의 마음을 담은것은 대통령기간뿐만은 아닙니다..당신을 지지하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아직도 당신에게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저희를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 힘드시겠지만 좋은모습으로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그래도 당신과 같은 정치인을 만난것은 대한민국의 행운이라 믿습니다..사랑합니다..그리고 저도 당신과 같은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아직 정치에 뜻은 없습니다만...

오리농법 2009.03.05 22:47

한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선 많은 사람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리농법도 확장 되어야 합니다.  
이것또한 희생 입니다.

산입니다, 2009.03.05 23:28

아직도 이 사회는 기득권들이 드글거리고 회사에서 당신을 얘기하면 속칭 좌빨이라고 하는 사회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을 존경하는 사람은 당신과 같이 바보 노무현이 되지요.

불암 2009.03.05 23:41

잘 읽었습니다.  
늘 저의 견문을 넓혀 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구요  
너무나 뵙고 싶습니다.

진우로 2009.03.06 00:48

잃어버린 10년이 넘 30년전으로 간것같네요.  
그렇다면 참여정부때로 갈려면 20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정준 2009.03.06 01:15

우매한 백성이 많아 아직 님의 진심을 못 읽지만, 그것 또한 지도자의 몫 아니겠습니까?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사랑니 2009.03.06 01:20

성고가 없다니요. 저는 많은 생각과 행동들이 변했습니다. 기분이 아닌 정책을 진실을 바탕으로 정당과 정치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컸는데 그러면 저는 자연히 000당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바꿨습니다. 왜 바꿨겠습니까 이 것이 미미하다는 말씀인지요.

청허 2009.03.06 05:29

교과서에 전혀 언급이 안되었던 특별히 관심을 갖지 못한 분들은 전혀 몰랐던....임시정부의 요직도 사양하였던 분으로... 항일독립운동의 요람이요 대부였던 아나키스트 이회영 열사의 다큐를 보고....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도 그런 분의 역할을 하였으면 합니다... 새로운 인물에게 정치의 노하우와 인맥을 연결 시켜주고....지금 대한민국을 망치는 자들을 응징할 대항마를...키우고 조력해주시는 역할을 하였으면 합니다....색즉시공의 마음으로...그리하시면...후세에 언젠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숭고한 마음이 수백 아니 수천 년간 남으리라 봅니다... ^^

느티나무05 2009.03.06 06:15

정치인이라 직업은 3D 업종이라고 느꼈지요.  
정치인 가족들의 고통도 누구보다 잘 알게 되었구요.

힘을 쫓아 불나비처럼 모여든게 아닌 정치이인이라면 그래도 어쩍니까?  
감내할 수밖에.....

애잔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건강하세요.

고마운이에게 2009.03.06 06:44

아침 일찍 인터넷 기사들을 검색하다가 이 글이 실린 기사를 읽고  
그냥 참 고마웠단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이 사이트에 가입을 했습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끼리코 2009.03.06 07:56

우리는 희망을 보여주신 정치인,  
노짱님으로 인해 많이 행복했는데...

지금도 쥐고 계시는 고초를 보면서,  
미안한 마음이 참 많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아끼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오래도록 함께 할 것이니  
기쁘고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물론, 여사님께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마른장낙 2009.03.06 08:56

요즘 정치를 보면 너무 우라통이 터집니다  
노공같은 분이 좀 많았으면 합니다  
민주주의의 말살정치 갔다고 할까...  
답답합니다.....

현자요수 2009.03.06 10:58

먼댓글이...끝도없이 이어지네요..이것이 노공님의 저력인가 싶어서 가슴이 뻗뻗해지네요.같은하늘아래에서 한곳으로 모일수있다는것(몸이든 마음이든 이상이든)정말 새로운 감동이네요.사랑합니다~

만촌아재 2009.03.06 11:20

대통령님처럼 추구하는 가치가 대다수 사람들에게 존중되고 평화로운 것일때 아름다운 것이겠지요. 하지만 많은 정치인은 그러한 가치추구보다는 가족,개인등의 안위와 영달을 위해 정치를 하기 때문에 녀의 충고가 먹히질 않을겁니다. 확실히....

신자연인 2009.03.06 11:46

글을 읽고 또 하나를 얻었습니다.

브로콜리 2009.03.06 11:51

존경합니다. ~ 잘읽었습니다.

낭만식객 2009.03.06 12:07

대통령님...그래도 당신으로 인해 민주주의 참맛을 봤습니다.

사랑합니다.

아사달 2009.03.06 12:53

말장난같습니다만 노공이산님 글을 읽다가 정치인과 정치가의 차이..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소한 이익에 전전공공 노심초사하는 정치인 정치배 모리배의 모습은 익숙한데 우리에게겐 정치가라고 불리는 사람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헌법에 부여된 대통령의 권력, 권한을 애써 놓아 민주의 율곽을 보여주신 노공이산님은 정치가로 불려도 되지 않을 지 ^^ 역사는 그렇게 증언해줄것이라 믿습니다. 유패같은 시절, 건강하소서!

카리마 2009.03.06 15:36

우리결로 주저없이 성큼 다가오신 대통령님 힘드신걸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픉니다.  
새날이 올때까지 내내 강녕하세요^^



정치하시는 분들의 목적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라고 착각했던 시절도 있었지만 요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정치는 정치 조직의 논리는 있지만 세상의 논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야망이 세상의 진리를 앞서가려고 하고 대중의 논리는 권력과 이익의 논리로 변질될 수 있는 것이 우리네 정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님의 사상의 존경했전것이고 믿었던것입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은 자에게 무엇을 주어도 그 가치를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전 님의 귀향길에 세상의 어린 새싹들을 위한 뿌리가 되어 주셨으면 하는 글을 올려드립니다. 방법론에서는 아직 미천하여 ..... 건강하세요

주은아빠 2009.03.07 23:57

평범한 두팔을 둔 아버지입니다. 전, 정권이 바뀔다고 해서 큰들의 흐름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정권이 바뀌니 여러가지 큰들의 흐름이 바뀌는 것 같아 아쉬움이 많습니다. 정치에 대한 글을 차분히 읽어 보았습니다. 여전히,, 말에 문제가 될까 생각하셔서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한 흔적이 보입니다.

자신의 소신에 따라 정치하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신영철 대법관예기로 사회가 시끄러운데,, 자기 소신 갖고 끝까지 가치를 지켜 나가는 분들이 많았으면 하는게 제 바람입니다. 한번도 빈적은 없지만,, 항상 소신있게 일하신 노건대통령 님의 소신을 모든 사회 분야에서 지켜 같으면 좋겠습니다.

춘추 2009.03.08 04:17

정치라는 세계를 속속들이 경험하시고 우리나라의 말씀이라 귀에 쏙 들어오는 설득력이 있습니다. 오래된 친구 가운데 그 세계에 발을 들이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역시 노짱님 말씀대로 관계가 미묘해졌습니다. 지금은 그나마 시의원이라도 하고 있어서 닳지만 예전 지방생 시절엔 만나기만 하면 우는 소릴 해대는 통에.....

이 사회에 쓸데없이 버려지는 에너지들이 아주 많이 존재한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님에목소리 2009.03.08 16:35

님들도 모두 건강하십시오

영웅노짱 2009.03.08 21:39

언젠가 노대통령님의 뜻과 신념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이들에게 엄마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있게요. 힘내시고 건강하세요

cozy 2009.03.10 00:26

우리 대통령께서 느끼시는 마음고생과 정치인으로써의 외로움이 생각보다 큰가 봅니다. 2003년 탄핵때의 촛불들을 기억해 주세요. 보이지 않는곳에서 대통령의 진심은 분명히 남아서 언젠가는 그 진가를 발휘할겁니다. 낭중지추를 믿습니다.

햇별지지 2009.03.10 10:15

높은자리 계시다가 시골로 가셨으니 고적하시겠어요. 아침마다 성경한장 읽으시고 기도하고나면, 마음이 충만해집니다.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대학이나 교회등지를 다니시며 강연도 하시지요. 사심을 버리신다면 언론의 자유가 있는데 누가 뭐랍니까?

강꽃임 2009.03.10 14:57

정치를하면 가족에게 피해를가는거군요 마음적으로보상을 해주어야할까요. 그러나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해야된다고봅니다. 모든 정치하시는분들 힘내시기바라고요 정상에갈구있도록노력하세요 화이팅

명민킹왕짱무현 2009.03.13 23:10

사랑합니다.고맙습니다..노무현 대통령님^^ 같은 하늘아래 숨쉬고있다는것이~~~~~

내일을 향하여 2009.03.14 01:15

이 글을 보면서 성경의 한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가난한 자여 복이 있나니"

가난하지기 때문에 담당하실수 있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존경합니다.

다만, 정치를 하면 할수록 잃을 것이 많다고 하신 것에는 쉽게 동의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마도 짐작하건데, 초심이나 본심과는 다른 말씀이시겠지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모르는 것이 많아지는 가난한 학생 드림.

쵸이플 2009.03.14 20:27

그동안 건강하셨습니까? 저는 대통령중에 가장 존경하는 분이 있다면..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일을 하고 계실때도 그렇게 좋았고 지금도 좋습니다. 몸에 배인 겸손함 남을 배려하고, 솔직한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meari9999 2009.03.20 20:27

위의 댓글을 읽어보니 모두 마음에 우러나오는 진정한 글들이 많군요 그동안 애석해 하고 또 하고 싶었던 모든 말들을 여기에 있으니 더 피력할 말이없네요 우리나라 역사에 길이 남을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 중의 대통령이며 나죽는날까지 존경하며 나의 셋 딸들에게도 최고의 대통령이었다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당신은 이험한 세상에 시원한 물같은 존재이며 진실 속에서 사셨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썩썩하게 살아오신 분입니다 힘 내십시오 언젠가 세상 사람들이 대통령님의 마음을 알아 줄날이 있을 겁니다

팔마택시 2009.03.24 20:21

대통령님 앞마당에 차 밭은 올봄에는 차밭을 볼수 있는지 모르겠네요...맛나는 차 건강에 좋은 봉하표 차 만드세요..초등생 3학년 5학년 조카들 데리고 님 계산곳 한번 가고 싶은데 봄철에 모내기철...건강하시게 모내기 하는 모습 우리 조카들에게 보여 주고 싶어요..벼는 꼭 심으세요..저사람이 우리 대통령이었다고 우리 조카들에게 보이고 싶네요..앞마당에 심는 차는 너무 비싸게 팔지 마세요 택시 운전사는 돈이 없어요 ...

팔마택시 2009.03.30 00:18

대통령님 봉하 마을엔 지금 벼꽃이 피어 올랐는지 모르겠네요...대통령님 올해 봉하 마을 친환경산물이 나오는지 궁금 합니다..경상도 말로 써부렁 거리는 말들이 많이 들리는데..그냥 맛 있는차 많이 만드세요..맛있는차 첫 수확 하실때는 이 사람에게도 연락 주세요..

유통인 2009.05.24 12:12

알아주는 국민들이 있기에 헛되지 않았습니니다. 고독하고 힘드셨던 고뇌 모두 잊으시고 이젠 조용한곳에서 편히 쉬십시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선스 2009.05.24 15:54

얼마나 힘든 일이 많으셨을까요.. 고뇌도 많이 하고.. 하지만 당신은 잘 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셨습니다.. 영원한 돌콩 노무현.. 당신을 사랑합니다..

별똥별꽃 2009.05.24 16:57

얼마나 힘들셨나..  
좋은 곳으로 가지길  
기도할게요...  
사랑합니다...

황태현 2009.05.24 21:34

많이 힘들셨나보네요.... 언제나 밝고 환한 미소셨는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사라져버리시다니 ㅎㅎ.....그러시면안되죠...대통령 임기가 5년인데. 5년 을 마치고 마을로 돌아오시면서 환한미소로 마을 사람들을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하셋을텐데..... 휴우.....제가 뭐학생이라. 찾아뵙고싶은데 찾아 뵙수가없네요..여름방학때 기회가된다면...지금제가 좋아하고있는 여자애와 꼭 사귀어서 ㅎㅎ 제일먼저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제임스권 2009.05.24 22:55

글을 읽다보니 감동이 전해져 옵니다. 항상 고민하면서 애쓰시던 당신의 모습이. 사랑합니다, 당신을. 이제는 좋은 곳에서 편안한 안식을 찾으시기를 빕니다.

존경하고사랑합니다노대통령◆ 2009.05.25 01:31

지금 한꺼번에 이글을 다 읽으려니깐 너무 가슴이 아프고 내가 왜 이런것에대해 가입도 안하고 이렇게 지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내자신이 죄가된것만같아요.  
노대통령님 편히 쉬세요. 정치 정말 .....

..  
..  
..  
..  
..  
..  
..  
..  
..

마늘공주 2009.05.25 02:14

사람의 냄새 흠의 냄새가 납니다 그~~냄새들이 너무 좋네요  
아주 멀게만 느껴졌던분을 이렇게 가까이  
접할수 있었다니 .....

알수없는 정치 .... 다만 이글로 인해 이해해보려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합니다

tkaths 2009.05.25 04:07

솔직하고 담백한 글.. 심도있게 잘 읽었습니다.. 그러나 생전에 접했다라면 더욱 실감있었으리라고 생각하며 읽었습니다. 故 노무현 前 대통령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부끄러운 서민 2009.05.25 10:42

생전에 못 봐서 죄송하고, 힘이되어드리지 못해 더욱 죄송하고....조용해지면 찾아가 술한잔 올리겠습니다..정말 죄송합니다. 가족분들 힘내세요.명복을 빕니다.

foraki 2009.05.25 16:29

난 이제 누구의 글을 기다리며 살아야하지?

노대통령님은천사♥ 2009.05.25 20:20

실패하지 않았습니니다.님의 업적 회미하지도 않습니다.세월이 흐를수록 애쓰신 그 공로들 더욱더 빛을 발할것입니다.왜그리 스스로에게 너그럽지 못했나요.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하셨습니니다.아 정말...님을 영원토록 기억하고 님의 뜻을 받드는것이 남은 저희들의 몫임을 깨닫습니니다.진심으로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빛나무 2009.05.25 22:05

생전에 한번 찾아뵙지 못한게 큰 한이네요.. 저희 잘못인것 같습니다.. 죄송하단 말밖에 안나오네요. 위로의 말 한마디 건네드리지 못했던 저희. 눈물만 흐릅니다.

tndus 2009.05.26 00:27

당신이 떠나기전에 왜 그때는 물렸을까요...지금 아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이토록 따뜻한 곳이 있었다는 것을...그토록 따뜻한 대통령이 계셨다는 것을...

눈물계속난다 2009.05.26 03:51

그렇게 외롭고 고독한 자리를 잘 견뎌내시다니 노대통령님은 멋지게 잘해내셨습니다.... 영원히 우리 국민들맘속에 대통령이십니니다..

SUN§ 2009.05.26 16:26

당신이였기에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Qkfroddl 2009.05.26 17:13

5년 동안 그렇게도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더니 남들보고는 하지마라? 능력이 되는 사람이 정치를 하면 자살하는 일도 없이 질 것입니다.

엠히뿌 2009.05.26 17:24

↑고약한인간.. 너한텐 욕도 아깝다.. 여까지 겨와서 헛소리질이야 .. 손가락 함부로 놀리지말고 생각하면서 살아라.. 불쌍한 종자야..

당신뿐이야 2009.05.27 00:46

미안합니다. 언제나 마음에 두었지만 표현하지 못했던것이 마음에 후회가 깊습니니다.

당신의 결벽증같은 순수한 마음이 저같은 지지자의 표현으로도

"뛰어나림"을 막지는 못했겠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 표현하지 못했던것이 내내 후회하고 후회할것 같습니다. 정말 마음으로 존경합니다. 세월의 풍파가 지나는 동안 남은 평생 마음에 새겨 당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최연소건축가 2009.05.27 10:32

너무 늦게 찾아뵙습니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투표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생년이 안된다며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아서 하루종일 입을 삐죽내밀고 다녔던 그 때가 생각납니다. 대학교때 탄핵으로 인해 교수님과 함께 토론을 했던적도 있었습니니다. 정치에 대해 자세하게 몰랐던 저였더라도 부모님께서 좋아하신 대통령을 비난하는 목소리는 들을 수가 없어서 그냥 무조건 노무현은 잘못었다고 모든일들이 터져버릴때 대통령이 된거라며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제말을 동의해주는 사람들이 더 많았던건 당연하고요. 이제 다시 살아생전의 따뜻한 미소를 지으실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럭포유 2009.05.27 11:59

글로 써 보신다는 약속 왜 지키지 않으시고 훌쩍 떠나셨는지요...?읽고 나서야 그 빈자리와 소중한 가치를 알게된다는 말..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한번 알게되었고 대통령께서 떠난후 두번 알게되었습니다...글 써 보신다는 약속도 지키시지 않고 떠나신 당신이 밍습니니다...그리고 그것을 하실 수 있게 지켜드리지 못한 우리들이 원망스럽습니니다...죄송합니다...우리들 마음속 영원한 대통령님...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행복한사랑 2009.05.27 12:58

무선댓글이..끝도없이..이어지네요..이것이 대통령의 저력인가 싶어서 가슴이 뻘뻘해지네요..대통령일기 동안에 넘 머리 아픈게 했스리라 생각합니다 부산 강서구에서 대통령님과 같이 밥도 먹을때 처음 봐지만 아무런 부담 없이 옆집(친한) 아저씨 같은 감정이 들터말요 후이 많이 묻은 부담 없는 사람어로 보였고요또한 국회의원 선거때도 저는 강서구에서 다른 지역어로 이사를 한 바람에 대통령 출마 하는 지역이 아니라서 마음속어로 당선되길 바라습니니다. 대통령님 하늘 나라에서 편히 쉬시고 명복을 빕니다.....

남자다운남자 2009.05.27 13:10

노무현 대통령님 정치하시너라고 수고 많이 하시고 이게 문선 일입니까 나의 어떤 희생을 요구 하거나 상처를 받을 것을 전제 하고 가는거지요. 상처 받지도 않는 사람의 생각이 앞으로 발전이나 용서가 있을까요? 상처 받지 문제는 그 사람은 결국 대통령의 말 씀 처럼 그런 과정을 필수로 겪어야 하는 한국의 정치생태에서 얼마나 견뎌 내느냐 이겠지만좀더 참여시요..하늘나라에서 마음 편히 행복하게 지내시고요.... 명복을 빕니다

씨앗키움 2009.05.28 00:06

끝없는 감동입니다.

페르소나02 2009.05.28 02:08

외롭고 고독한 자리에서 꿋꿋이 버티셨으면서, 이번에는 왜 그리 슬프게 떠나셨나요...마음이 아픕니다. 오죽 힘드셨으면...남은 제 일생에서 대통령님만큼 훌륭한 분은 만나뵙기 힘들 것 같습니다. 힘든 자리에서 잘 계셔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비록 지금은 들으실 수 없겠지만, 그간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하고, 하늘나라에서는 부디 편안하게 웃음지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명복을 빕니다.

올보a 2009.05.28 05:49

많이 힘드셨구나... 외로우셨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니다.. 지켜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명복을 빕니다..

던에드몬튼 2009.05.28 18:20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소주랑 2009.05.29 15:51

좋은 곳으로 가시길..

존경,사랑해요 2009.05.29 20:51

좋은 곳으로 가시길 기도합니다.

베트콩 2009.05.30 06:52

자꾸만눈물만남니다  
밤새잠못이루고눈물만남니다

행복 사랑 2009.05.30 12:01

그래도 당신이 계셔서 정치에 정말 관심도 없었던 제가 조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꼭 당신의 뒤를 이어 누군가 그정신을 이어받아 좋은 정치를 해주실분들이 많이 나오리라 믿습니다

함께하는삶이 2009.05.31 06:15

이제야 이런글을 올려 주심을 알고 가슴이 먹먹해 집니다...왜 녀의 글을 이제야 알게되었는지...눈물만.....저를 절대 용서 하지마십시오 ....외로우실때 위안이 되지 못한것 용서 하지마십시오,지켜드리지 못한것을 용서하지마십시오.....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대통령께서 떠나신 ...이곳에 남아있는 우리들이 오히려 불쌍하게 느껴집니다....이제 저희들 격정일랑 내려 놓으시고 편히 쉬십시오

파이어펀트2 2009.05.31 10:59

정치인은 국민의 표로 당선이 되지만,,,국민들의 존경으로 먹고산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존경이 없는 정치인은 유혹과 수렁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나라에 노짱님과 같은 정치인이 많이 배출된다면 국민들이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과 정치인에 대한 이해도 많이 달라질것입니다만,,

노짱님과 같은 정치인이 또 나올수 있을까요?  
물론 안나온다는 법은 없지만,,,노짱님은 어떤 이유때문이기 보다는 그냥 노짱이기때문에 한없이 좋아하고 행복했던것 같습니다.  
정말로 보고싶습니다. 한없이 보고싶습니다. 아직도 살아계신것 같이 실감이 나질 않습니다.

날개잃은물새 2009.05.31 15:56

우리는 대통령으로서의 정치인으로서의 노무현이 아닌 인간 노무현을 사랑했습니다. 앞으로도 오래도록 기억할것입니다. 선거를 하게되면 내가 행사하게 될 그 한표를 위해서 얼마나 고민해야 하는가를 실감했던 시간들입니다. 정치로 인하여 너무나 소중한 한 사람 노무현대통령을 잃은후부터는.....부디 그곳에서는 이곳에서 못다이룬 행복 더이상 잃지마시길 빕니다.

코코아가좋아 2009.05.31 20:42

대통령님!! 어디계세요.. 보고싶습니다. 이젠 사진과 영상으로만 대통령님을 만나야 하는건가요..

바보영애 2009.05.31 22:47

맞습니다...정치인으로서가 아니라 한번쯤 마주 앉아 소주 한잔 올리며 제 이야기좀 들어 달라고 보채고 싶었던 그런 분이셨습니다...그분의 인자하신 미소와 천진스런 표정과 재치있는 유머감각 모두모두 제게는 존경스러움뿐이었는데...하루하루 살아내기 바빠 이분의 글을 이제야 접하게 되다니...저는 참으로 부끄럽습니다.사람사는 세상을 남아있는 우리들이라든 해 낼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우리들이 해 낼 수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래봅니다...

백만송이장미 2009.06.01 02:35

다음에 쓰신다한것들 다 물어버리셨군요 더 가르쳐주고 더 넓게 포용하며 조금만 참으시지 이글을 읽으면서 당신은 절대 스스로 돌아갈분이 아니었다는 생각만이 들군요

뜨락1 2009.06.01 11:05

진심어린 솔직한 심경을 보여주신 아름다운 영혼의 소유자....  
보..고.. 싶...습...니...다.....~~~~~

성터 2009.06.02 03:21

살아 생전 노짱님의 피끓는 대선 출마 연설을 다시 보며 또 눈물 흘립니다.  
3년반 남았습니다. 잊지 맙시다.  
<http://bbs2.agora.media.daum.net/gaia/do/kin/read?bbsId=K153&articleId=38354>

당신은아름답습니다 2009.06.02 19:56

사랑합니다 노통님.....그립습니다...ㅠㅠ

하얀비둘기 2009.06.03 00:45

너무너무 그립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의 하나뿐인 대. 통. 령 님..

인간의삶 2009.06.04 23:41

아~ 그렇군요.. 전 정치에 정자도 모르는사람입니다. 대통령님..  
지금껏 왜이렇게 정치인들은 당을 나누어 서로 싸우기만 할까 생각했습니다.  
아예 당을 나누지않고 하나의 당만 있으면 안돼나 이런 바보같은 생각도 해봤구요.  
이제야 알겠네요. 당을 나누어 싸우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무너진다니. 그런뜻이있었군요.. 그리고 민주주의 정치가 그런 구조로 돼 있다는것도.. 대통령님이 떠나신 후에야 정치에 관심을 갖게 돼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그리고 존경합니다. 보고싶습니다. 나의 대통령님. 절대절대 잊을수없는 사랑하는 대통령님

으\_-\_흠 2009.06.09 00:36

정치 제대로 하는 노통님외 몇분들만.. 느끼는 감정이실겁니다..  
휴..... 어떤 정치가들은 두둑히 챙겨 배좁 불렀을것입니다.

박은주 2009.06.13 01:31

그래도 믿음만한 정치인을 지지하겠습니다.누구든 해야 하는 일이니 나서서 해주되 노무현대통령님의 반에 반만이라도 하는 사람을 지지하겠습니다. 정말 미치도록 그립습니다.

통째지 성은 2009.06.17 11:43

멍박아저씨는 이렇게 좋은글 못써여 노가다 출신이저나여 벽하면 강산을 뒤집을려고 혀잡어



구지봉 2009.06.18 14:08

정말 공감합니다 전 정치를 잘 모르는 아줌맙니다만 평소 이런생각을 하고있었는데 좋은글을 접하니 역시 라는생각입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하니 가슴이 아플려고하네요 정치와 돈관계를 너무 터붓아하는것은 음지에서 또다른 거래를 유발하는건 아닐까요 정치도 사람이하는것인데 금전적부분을 너무 배제시켜 청년 결백은 아니라고 봅니다 돈은 있어야 (최소의) 사람을 만나든정치를 하든 할꺼 아니겠나구요 전 정치란것이 거창한것이 아니라고생각합니다 작게는 내주위와 소통하는것에서 시작아닐까요 작은예로 주위와 사람들과 차한잔먹는것도 몇번언어먹음 나도한번 차한잔 대접할수있는 최소한의 경제는 되어야하지않나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너무 까발리고 험담하고.... 최소한은 인정하고 그런 제도가 정착이 되어 이런 비극들이 없어지고 더불어살수 있는 서로 배려하는 삶을 서로 소통하는 세상이 되었음... 노통님의 맘을 넘공감하고 그래서 항상 가슴이 찢어집니다

비육지탄 2009.06.19 21:18

오늘도 평안하시죠?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만나 뵈셨을까요.

아버지는 노공님과 같은 연배인데, 생전에 정말 좋아하셨거든요.  
행여 저희 아버님 뵈거든 악수나 한번 해주세요.  
정말 좋아하실거예요.

또 인사드리러 올께요.  
그때까지 평안하세요.

파란대문 2009.06.24 17:23

정치인의 비애가 느껴집니다. 앞으로는 정치인을 적어도 색안경을 끼고 보지는 말아야겠습니다. 이런 글들을 더 많이 볼수없다는 슬픔에 가슴이 아파옵니다.

복지국가로 2009.07.03 17:07

지옥같은 터널을 겨우 빠져나왔다고 하는 대목에서 또 눈물이 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지.....겨우 고향에서 평안을 찾으려 했는데....

자기관리 2009.07.17 20:19

노대통령님의 사람됨을 평가하는 말에서,

지기추상, 대인존중

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과연, 자기에게는 엄격하고 타인에게는 부드러웠던 큰 어른이셨습니다.

삼가,  
분노하며 애도하고, 여사님 가족분들도 이 슬픔을 이겨내시고,  
국민들과 함께하는 대통령님이셨음을 국민들이 이제 알았잖습니까.....  
대통령님은 국민들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의별나무 2009.07.21 09:53

이렇게 할 일들을 많이 생각해놓고 떠나셨네요... 정말 정말 아까운 분 TTT

하나의별나무 2009.07.21 09:53

이렇게 할 일들을 많이 생각해놓고 떠나셨네요... 정말 정말 아까운 분 TTT

american 2009.07.27 03:17

하늘은 큰 인재를 오래 구경 시켜 주지 않는군요. 참으로 일찍 데려 가셨습니다.그러

Qkfroddl 2009.07.29 14:31

자신은 단물 씹물 다 빼쳐먹고 남들보고는 먹지 마라는 것과 뭐가 다를까?

Qkfroddl 2009.07.29 14:34

댓글수준을 보니 시정잡배 노무현이 밤새 보면서 굉장히 흐뭇해 했겠군

0065 2009.08.09 19:04

장인이어른이 설명하기한다고 처가댁에 다녀왔는데 오다가 님이 생각나서 모두 쿨하게생각해야되는데 정말 보고싶다 정말 듣고싶다

트리엔 2009.08.10 22:09

Qkfroddl 니가 진정팬이구나~~댓글을 두개나 올리궁~~니네 집에 가서 놀아라~~

로또야 2009.08.13 15:12

Qkfroddl<- 빨갱이 ㅋㅋㅋ 네가 빨갱이였더냐~!!  
네말에서 그리 느꼈다...가엾은..아무도 돌아주지 않더냐~  
홀려 홀려 이곳까지 오게되다니...허나 이곳은 너와 돌아줄사람이  
없구나~ 네말엔 이젠 나외엔 그 누구도 대꾸하지 않을것이니  
취구멍에 별뜰날 있거든 취꼬리 내밀며 나오려 할것이다~  
그때 취꼬리 잡고 놀도록 하려므나...

문직이 2009.09.18 18:18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맑으신 분이 혼탁한 정치인 속에서 꿈과 현실 속에서의 괴리감으로 고민하신 흔적이 느껴집니다. 이런 분(고 노무현 전 대통령님)이 많은(단 2명,아니 1명? .....) 정치라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우뚝 설 텐데,요즈음의 정치는 은밀한 정경유착의 상황일꺼라는 우려가 보이고 바른말하는 정치인은 눈을 씻고 봐도 없는 것 같다.

젤라 2009.10.09 23:18

이렇게 할 일이 많은 본인데..너무너무 화가 나네요.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그렇게 황망스럽게 가시다니요. 빨리 진실이 밝혀져서 명예회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순대렐라 2009.11.25 21:28

아 사랑하는 대통령님 왜 이렇게 허망하게 가지고 슬픈글을 읽게 하시나요.  
내가 당신을 기억하고 우리가 당신을 기억하고 내 주변을 조직화 해 나간다면 이런 비극은 되풀이 되지않겠죠?

술길 2010.01.11 18:07

정치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간적인 고민의 고백을 솔직히 말씀하시니 따스하게 느껴집니다.  
따뜻한 정치인이 봉하에서 오래오래 사셨다면 국민들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한국이 싫어질까 걱정입니다

비단오리 2010.03.19 11:02

그립고그립고그립습니다.  
보고싶습니다.  
봉하에서도 볼수없어 헤메이네요  
잘계신지요?? 예전에 힘을실어드리지 못해 정말 죄송하고 아픕니다.

북광장자 2010.07.30 00:58

말씀 잘 읽고 갑니다~  
자연의 일부가 되신 대통령님 부디 후생선처를 기원드립니다~

두원인 2010.09.12 21:41

봉하마을에 가도 볼 수 없게 된 노통.. 왜 살아계실 때 한 번 뵈 생각을 안했을까요?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 거라 생각했나봅니다. 이젠 목 놓아 불러도 대답이 없으시니.. 자연의 한 조각이 되셨으니.. 그저 망연자실.. 무상의 이치를 곱씹어볼 뿐입니다. 노통.. 당신은 사랑입니다. \_O\_

금지면새택 2011.01.06 14:04

당신은 정치하지마라 하셨지만..당신의 정치로 인해..저는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당신이떠난 나에게 남아있는건.. 당신이 그토록 생각하셨던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다시한번 마음속에 새길수 있고 새기게 되는것이 당신의 정치였습니다.. 사랑합니다..

니캉내캉 2012.01.20 02:03

일부러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서...  
그립습니다. 나의 영원한 대통령 노무현...  
당신같은 사람이 당신이 못다한 것을 이루고자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당신께서 정치하지 말라고 당부했음에도 정치를 고집합니다. 그것도 편한길보다는 더더욱 어려운 길을...

보태야지요. 작은 민초지만 당신에게 그랬듯이 그 사람에게도 친구가 되어주어야죠.

자주 찾도록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손평쓰기

등록

목록

NO	제목	조회	글쓴이	등록일
38	[진보주의 글] 이렇게 가보면 어떨까요? (2009.4.7 노무현) (36)	27325	운영자	2009.07.22
37	[진보주의 글] 줄거리 4차 초안입니다. 이 마당에서 토론을 해봅시다 (2009.3.20 노무현) (8)	4534	운영자	2009.07.22
36	[진보주의 글] 전체 줄거리 제3차 초안입니다. 토론으로 정리를 해봅시다 (2009.2.8 노무현) (6)	2945	운영자	2009.07.22
35	[진보주의 글] 전체 줄거리 구성에 관하여 2차 초안 (2009.1.27 노무현) (4)	2706	운영자	2009.07.22
34	[진보주의 글] 전체 줄거리 구성 1차 초안입니다 (2009.1.23 노무현) (27)	13715	운영자	2009.07.22
33	'사람세상' 홈페이지를 닫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1392)	387868	노무현	2009.04.22
32	저의 집 안뜰을 돌려주세요 (1056)	289429	노무현	2009.04.21
31	강 금원이라는 사람 (1522)	354982	노무현	2009.04.17
30	부탁드립니다 (971)	157178	노무현	2009.04.08
29	사과드립니다. (1246)	186147	노무현	2009.04.07
28	좋은 글 하나 추천 드립니다. (122)	130872	노무현	2009.03.19
27	G20 재무장관회의 기사를 보고 (97)	56636	노무현	2009.03.15
26	상대주의와 보편적 가치 (107)	26086	노무현	2009.03.13
25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가 무엇인가요? (83)	30610	노무현	2009.03.12
24	토론마당 하나 소개합니다. (71)	26684	노무현	2009.03.07
23	관용의 한계는 누가 설정하는가? (83)	16589	노무현	2009.03.06
22	관용은 용서와 다릅니다. (164)	52304	노무현	2009.03.05
21	연속극 끝났는데... (271)	119270	노무현	2009.03.05
현재글	정치하지 마라. (275)	109607	노무현	2009.03.04

노무현대통령 공식홈페이지  
 사랑하는 세상  
 노 · 무 · 현 · 재 · 단

우 (121-893)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68-22, 서문빌딩 2층 | 전화 1688-0523 | 팩스 02-713-1219 | 이사장 이병완 | 사업자번호 105-82-17699  
 COPYRIGHT © 사랑하는세상 노무현재단 ALL RIGHTS RESERVED. | 이메일 knowhow@knowhow.or.kr [노무현재단 찾아오시는 길](#)

우 (621-803)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93 | 전화 055-344-1004 | 팩스 055-344-1007 | 이사장 권양숙 | 사업자번호 615-82-09681  
 COPYRIGHT © 재단법인 아름다운봉하 ALL RIGHTS RESERVED. [봉하재단 찾아오시는 길](#)

문의전화 회원·홈페이지·저작권 1688-0523 / 해외전용(직통) 070-7931-0535 / 묘역·생가·자원봉사 055-344-1302 / 봉하장터 1599-1946 / 생가앞터 055-344-1005